

2020년 제22회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
우수사례집

2020년 제22회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 우수사례집

2020년 12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발행

www.sdkorea.org

Contents

01. 수원시,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마을이 함께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수원시 공유냉장고	06	민·관협력
02. 전라북도,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로플라스틱전북 객리단길 시범사업	14	
03.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 야호아이놀이과 야호 생태(숲)놀이터 조성사업	22	
04. 경상남도·경상남도의회지속가능발전연구회·경상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빠른 전환 “지방의회가 함께하면 SDGs가 빨라집니다”	28	
05.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도시 도봉』은 ‘민관협치’로 UP	36	
<hr/>		
06. 서울특별시 종로구 - 종로형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구축 - 역사와 자연을 품은 내일이 더 행복한 지속가능 종로	44	지자체
07. 경상남도 김해시 인간과 지구의 영원한 공존을 위한 김해형 SDGs 거버넌스 구축	52	
08.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과 함께하는 SDGs 이행체계 구축 및 운영	60	
<hr/>		
09. 인천항만공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해양환경 보전, 국내 최초 항만분야 미세먼지 저감 성과 달성	68	기업
10. 한국세라믹기술원 국민의 ‘LOVE’를 위해 지역사회 및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SDGs 이행	76	
<hr/>		
11. 유인근, 옥진우 SD GAME 시뮬레이팅으로 지속가능발전의식 키우기	86	개인
12. 백명순 슬기로운 주부생활, 「아이스팩 재활용」 전국 열풍의 주역	94	
13. 윤여태 (해피나비프렌즈) 해피나비 해피피플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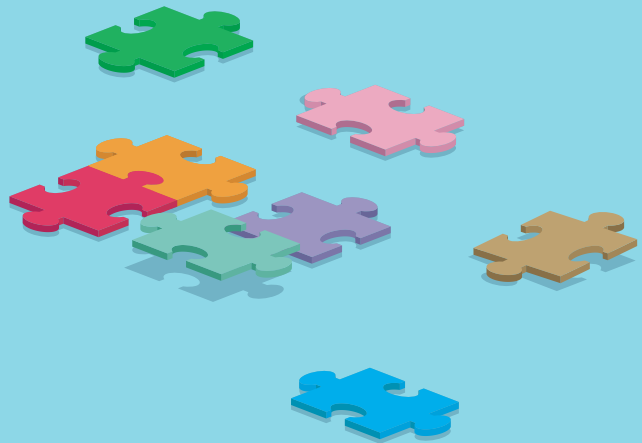
민·관 협력



01.

수원시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마을이 함께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수원시 공유냉장고



사업목적 및 배경 ●●●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마을 안에서의 우애와 연대’ 공유가치 실천

경제성장으로 인한 물질적 풍요 속에서 기아와 빈곤이라는 악순환이 여전히 존재하고, 특히 글로벌 아젠다의 하나로서 먹거리 보장(접근권)은 지역에서의 접근방법이 중요한 의제이자 목적이 되었다.

2015년 9월 수립된 UN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어느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환경·경제·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각 나라와 이해당사자들이 이행해야 하는 보편적 목표가 되었다.

수원시는 2017년 민·관 공동선언을 계기로 수원시 지역형에 맞춘 수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S-SDGs) 10개를 수립하였으며, S-SDGs 목표 이행을 위해 시민대표위원들과 목표별 실천과제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가장 핵심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실천이다. 실천참여의 중요한 기반인 시민, 공공기관, 전문가, 여러 기관이 연계하여 실천할 수 있는 사례를 우선적 순위에 두었고, 이에 먹거리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수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통한 먹거리보장 의제 수립과 ‘마을 안에서의 우애와 연대’라는 공유가치를 도출하였다.

수원시의 공유가치는 수원시와 유·무형의 마을 간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수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사례의 진정한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실천이 된다.

이러한 먹거리 보장체제를 통해 먹거리 생태적 순환, 음식물쓰레기 감소, 온실가스 배출감축, 먹거리기본권 보장, 복지사각지대 해소, 마을먹거리복지 구축, 공동체 복원, 사회적 공유가치실현 등 환경·경제·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개체이며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사업이 바로 수원시 공유냉장고 사업 추진계기가 되었다.

사업내용 ●●●

첫 번째 실천사업, 공유냉장고 프로젝트 시작

2017년 12월 시민, 기업,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원시는 공유냉장고 프로젝트 간담회를 시작으로 실천사업을 위한 정책방안, 주요 행동방안을 검토하고 구체화하였고,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조직, 주체, 전략(설치위치, 운영자 모집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기본 운영방향을 도출하였다.

구 분	기 본 원 칩
설 치 위 치	·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및 노인가구, 다문화 가구 밀집지역 설치 (학교, 임대아파트 지역 등 유형별 사례에 따라 확장 가능) · 접근성, 관리상 안정성, 낙인효과를 배제할 수 있는 장소 고려
관 리 자	· 심층면접을 통한 책임감 있는 시민자원 운영자 선정
지 원 체 계	·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산하 중간지원조직 · 도시농업네트워크, 식생활교육시민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 마을별 상점, 식당, 개인, 가정 등 상시지원
먹 거 리	· 농민기부에 의한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의 신선한 먹거리 공급 · 마을별 자원관리자가 음식물 가공 및 원재료 공급 등 판단 후 공유
이용자 모니터링	· 공유냉장고 이용한 마을 이용자들의 만족도 등 모니터링
운 영 자 회 의	· 운영자, 시민단체, 사회복지관, 먹거리공급자 등 운영자 간 정기회의
지 원 체 계 회 의	· 민·관 간 지원체계 점검 등을 위한 정기적인 회의 ·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사업으로서 4번 목표위원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서로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첫 번째 공유냉장고부터 열아홉 개의 공유냉장고까지

공유냉장고는 프로젝트 간담회와 동시에 실행이 되었고, 2018년 1월 수원시 고색동 생태교통문화협동조합 커피페이지 1호점을 개소하였다. 초기 운영단계

에서는 일부 이용자들의 음식 독점으로 인한 운영자와의 갈등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친 운영자 간담회를 통해 이용자 동의 규칙을 제정하고, 운영자 일지 모니터링 및 현안사항 공유로 해결방법을 마련하였고 운영자의 정기적인 교육과 더불어 쉽게 읽을 수 있는 공유냉장고 사용안내서를 제작하여 공유냉장고 문화가 마을에 정착하고, 마을 전체가 공유냉장고를 관리하는 바탕이 되었다.

누구나 음식물을 넣고 누구나 가져가 드셔도 됩니다.

처음 '공유냉장고'를 접하는 많은 사람은 이 냉장고가 누가? 왜 설치했는지?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음식은 누가 넣고, 누가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해 한다. '누구나 음식물을 넣고 누구나 가져가 드셔도 됩니다.' 는 안내 문구에 정말 누구나 가져가도 되는지, 나도 가져가도 되는지 되묻는다.

공유냉장고는 누구나 음식물이 필요한 사람이면 음식물을 가져가서 먹을 수 있고, 남은 음식물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다. 이웃에게 나누고 싶고, 나눔 받고 싶어도 직접 주고받는 나눔에 비해 공유냉장고라는 매개를 통해 공유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다. 나눔의 가치가 확산되고, 공동체의 이야깃거리가 생겨나면서 마을 공동체가 복원되는 구심점이 된다.

공유냉장고를 지원하는 단체 · 시민들은 모두의 키다리 아저씨

공유냉장고의 운영은 굉장히 일사분란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 한살림, 하나로마트, 건강먹거리시민네트워크, 수원그린트러스트 등의 지원 단체 및 관내 초·중·고와 연계한 식생활교육으로 먹거리 나눔 실천교육이 진행되는 등 지원 단체는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칼국수집, 빵집, 피자집, 짜장면집 동네 식당의 공유, 새마을 부녀회, 마을 봉사단, 사랑의 밥차 등 다양한 나눔과 후원이 이어진다. 누구나 공유냉장고의 지원조직이 될 수 있고 먹거리를 공유할 수 있다.

이들 중간지원자와 각 공유냉장고 운영자는 오프라인에서의 활동뿐만이 아닌 온라인 SNS에서도 공유냉장고 운영상황과 먹거리공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

악·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현장 상황을 통한 먹거리 지원단체의 운영계획으로 공유냉장고 먹거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공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은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먹거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함께 협업하고 있다.

공유냉장고는 우리 모두가 주인입니다. 너는 공급자고, 나는 이용자? NO~ NO~

마을에 설치된 공유냉장고의 이용자는 특별한 취약계층도 특별한 소외된 이웃도 아니다. 음식을 넣는 사람도 누구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공유냉장고의 주인인 것이다. 음식을 가져가서 잘 이용했던 어느 한 주민의 답례로서 넣어둔 사과 몇 알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값진 과일이 된다.

앞으로 미래사회의 주인인 청소년들의 공유와 참여는 더욱 의미가 있다. 건강 먹거리 인식확대 교육과 도시텃밭(친환경, 로컬푸드)을 활용한 생태환경 수업을 하는 ‘지속가능발전 학교생태플랫폼 사업’은 식생활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음식 나눔에 대해 고민하고 수업을 통해 만들어진 음식이 공유냉장고에 공유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나눔과 공동체라는 공유문화 가치 실천 확산에 함께 하기 위함이다. 2019년도에만 8개교·195명이 참여하여 어린 학생들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실천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용자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2019년 2개소, 4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이용자 인터뷰는 공유냉장고 운영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반영이 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호 보완해 나갈 것이다.

평가와 과제 ●●●

지속가능발전(SDGs) 가치를 공유한 대표적 사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먹거리 분야는 수원시 시정방향에도 영향을 주어 ‘수원시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의 밑받침이 되었고, 수원시 공유문화 확산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공유냉장고가 구심점이 되어 운영자와 주민 간 마을 공동체 문화가 형성이 되는 기반이 되고 있으며, 운영자를 중심으로 하는 워킹맘 요리교실 개최와 공유냉장고 주변이 먹거리 외 또 다른 공유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공간이 창출되는 시너지가 발생하는 등 공동체 복원과 나눔 문화 가치가 실천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봉사를 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진정한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공유냉장고는 민·관의 대표적인 협력사례로 여러 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수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 1, 4, 6, 7번과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 2, 3, 10, 11, 12, 13 번과의 연계가 되는 통합적인 실천 사례가 된 것이다.



공유냉장고의 지속가능한 가치가 마을마다, 골목마다 촘촘하게 퍼지길

공유냉장고 실천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먹거리 사각지대 해소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이로 인해 안타까운 사연들이 종종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비단 먹거리 분야뿐만이 아니다. 올 초 우리의 일상을 뒤흔든 코로나19와 가속화되는 기후변화, 일자리의 불안정 등의 문제가 대두될수록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유냉장고의 운영자는 SDGs의 실천가이며 동시에 이행가이다. 공유냉장고를 통해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실천되며 자연스럽게 그 가치가 일상으로 스며드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수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목표수립부터 이행까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져왔다. 마을마다 골목마다 촘촘히 공유냉장고에 담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가치가 확산되어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길 희망한다. 공유냉장고 한 운영자님의 말씀처럼 2030년에는 “공유냉장고로 인해 울컥하는 감동으로 세상을 사는 삶의 기적을 체험했다” 라고, 그로 인해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 수 있었다고 회고하기를 바란다.

사진 등(핵심 사진 중심)



공유냉장고 지원조직 간 연계



다문화가족을 위한 홍보문(중국어)



공유냉장고 이용자 모습



수원시 내 공유냉장고 설치현황



서호중학교 동아리 '공유의 맛' 활동



지역 사회적기업의 먹거리 공유



수원식생활교육네트워크 먹거리 공유



지속가능발전 학교생태플랫폼

02.

전라북도 ·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로플라스틱전북 객리단길 시범사업



사업목적 및 배경 ●●●

당신은 문제입니까? 해결책입니까?

“2050년에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이다.” 스위스에서 개막된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 이 같은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됐다. 유엔환경계획과 많은 언론, 시민단체 등도 입을 모아 플라스틱의 위험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한국은 많은 부분에서 세계 1위를 하고 있다.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또한 세계 1위를 하면서 부끄러움은 우리들의 몫이 되었다.

2018년에는 중국이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한국은 쓰레기 대란을 겪었고, 필리핀에 불법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출하면서 반송당한 일도 있었다. 한국의 작은 도시 전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주시의 재활용 쓰레기가 급증하면서 처리가 한계점에 도달해 타 지역으로 보내지고 있다.

이 같은 플라스틱 홍수시대에 전 세계적 문제인 1회용 플라스틱 범람에 따른 거버넌스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절감을 위한 자발적 실천 운동을 진행하는 제로플라스틱 운동을 전라북도과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객리단길 카페 업주들이 제로플라스틱전북 민관협의체라는 이름으로 뚝뚝 뭉쳐 2년째 사업을 진행 중이다.

플라스틱 없는 전라북도?!

2006년 100만 명에 불과했던 전주한옥마을의 관광객 수가 2017년 이후 3년 연속 1,000만 명을 넘어섰고, 한옥마을과 인접한 구도심인 객리단길에도 관광객들의 수요가 늘자, 카페 거리가 조성되면서 ‘Take Out’ 1회용 플라스틱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가 지역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2018년 9월 3일, 지역의 폐기물 관리 정책에 대한 「플라스틱 zero 사회를 위한 민관토론회」를 실시하여 도민에 의한 자발적인 1회용품 저감 실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단체, 행정, 마을, 기업과의 자원순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운영 및 도민홍보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행정, 의회,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민관협력 실천사업에 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2018년 10월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명연 전라북도의원 발의로 12월 동명의 조례를 제정했다. 행정에서는 지원할 근거를 갖게 됐고, 2019년 제로플라스틱전북 객리단길 시범사업은 첫 발을 내딛었다.

사업내용 ●●●

거버넌스적 해결방안 : 제로플라스틱전북 민관협의체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회용 플라스틱 다소비 구역인 전주시 객리단길을 사업구역으로 설정하고, 객리단길 주변 카페를 중심으로 업체들과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에 뜻을 모아 제로플라스틱전북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객리단길 내 공유컵 사용과 수거를 공동으로 관리하겠다는 협약을 맺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9년 전주 객리단길 내 카페 32개소 중 18개 업체를 시작으로, 폐업 및 이전 등을 제외하고 현재는 16개 업체가 제로플라스틱전북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여 1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힘써주시고 있다.

제로플라스틱전북 민관협의체는 매월 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참여업체 간 협력 분위기를 유지하고, 공유컵의 사용과 공동회수 방안, 1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와 공유컵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민관협의체는 스스로의 약속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면, ‘카페 테라스 내에서도 1회용품 대신 공유컵과 머그컵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환경부가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한 현 상

황에서도 협의체의 약속은 지속적으로 지켜지고 있다. 다만 공유컵 이용을 꺼리는 소비자들이나 공유컵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알리는 소비자들에게는 1회용 플라스틱을 대신해 생분해용기(*PLA)로 제공하고 있다.

*PLA : 옥수수 전분을 주재료로 한 식물성 수지로, 매립 시 180일 이내에 생분해 가능한 친환경 소재

이런 노력에 언론과 기업 등도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방송과 신문, 라디오 등 언론 매체에서 인터뷰와 촬영 문의가 계속되고 있고, 지역 대기업의 지역사회공헌사업의 참여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그 중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제로플라스틱전북-객리단길의 든든한 파트너이다.

“TURN블러에 감사드립니다.”

“TURN블러”는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을 되살린다는 의미와 컵을 다시 돌려달라는 의미를 담아 지은 이름으로, 제로플라스틱전북 민관협의체 참여카페가 객리단길에서 함께 사용하는 다회용 공유컵이다. 민관협의체 내에서 공모해 결정한 이름이다. (하마터면 ‘쌔비지마 컵’이 될 뻔했다.)

TURN블러는 총 2,000개가 제작되었고, 생분해성용기 및 빨대 지원, 제로플라스틱전북 로고와 현판, 증정용 텀블러 제작, 홍보 등 민관협의체의 손을 거치며 1회용 플라스틱은 줄어가고 있다.

TURN블러와 PLA의 사용으로 2019년 한 해에만 약 16만 개의 1회용 플라스틱을 줄였고, 이것을 거리로 환산하면 전주시청에서 익산시청까지의 거리인 약 27km였다.

전주의 시민의식은 높았다. 한 예로 모 대기업과 대학교가 함께 추진했던 공유컵 자판기 사업은 한 달만에 분실률 100%로 끝났던 사업이 있다. TURN블러는 어땠을까? 믿기 힘들겠지만 2019년 초 2,000개를 제작했던 TURN블러가 사업종료 시점에 약 900개가 매장에 남아있었고 평균 반납률 81.5%였다.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1,100여 개의 TURN블러는 현재 계속해서 반납이 되고 있다.

이는 카페 업주들의 노력이 가져다준 결과다. 텀블러를 내보내면서 이 컵이 갖는 의미와 반납 방법 등을 입이 아프게 설명했던 사장님들이 계셔서 TURN 블러가 아직 생명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사용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객리단길에 오신다면 빛나는 황금색의 사각 현판을 찾아보시라. 아마 제로플라스틱 참여업체임을 알리는 현판일 것이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 음료를 주문하면서 테이크아웃 의사표시를 하면 ‘텀블러에 드릴까요?’ 라는 사장님의 질문이 있을 것이고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찡긋해 승낙의 표시를 해주면 된다. 음료가 나오면서 텀블러, 그리고 생분해 뚜껑과 빨대가 결합돼 나올 것이다. 사장님은 100이면 100, 당신에게 참여업체 지도가 인쇄된 쿠폰을 주면서 반납 방법을 설명해줄 것이다. 음료를 들고 거리에 나와 객리단길(전주 영화의거리 안에 있다.)을 즐기면 된다. 이후 안내받은 대로 다시 사각 현판을 단 카페를 찾아 반납하면 된다. 이 때 텀블러의 수만큼 쿠폰에 도장을 찍어줄 것이고, 10개를 모으면 소장용 고급 텀블러(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제공)를 받을 수 있다. 내 손으로 1회용 플라스틱을 줄였다는 뿌듯함은 덤으로 드린다.

1회용 플라스틱과의 전쟁 선포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1회용 플라스틱 없는 거리를 위해 2019년 전주 객리단길에서 ‘지구의 날 맞이 객리단길 대행진’을 진행했다. 약 300명의 시민들과 객리단길 일대에서 플로깅(걷거나 뛰면서 길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하며 1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용감축을 하자는 취지로 제로플라스틱 운동과 제로플라스틱전북 민관협의체를 처음 알렸다. 전라북도와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여업체들의 협약식도 진행됐다.

제로플라스틱전북 민관협의체는 2019년에만 총 19번 회의를 진행했다. 생계를 책임지는 사장님들 입장에서 회의는 불편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카페 오픈 시간을 늦추고도 나오셔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혼자 장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매일 12시간 이상씩 일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인데도 회의에 참석하시는 사장님도 많다. 이런 피, 땀, 눈물로 지어온 공동농장이

제로플라스틱전북-객리단길이다.

평가와 과제 ●●●

홍보는 항상 고민을 안겨준다. 제한된 예산과 부족한 인력으로 홍보를 진행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카페 사장님들의 장기도 살리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린웨이환경축제 환경부스에 참여했다. 1회용품 없는 축제로 기획된 만큼 개인용 텀블러를 소지하고 오는 모든 도민들에게 아메리카노와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단돈 천원에 판매했다. 카페를 비워가면서 시간을 정해 행사장에 나와 커피를 만들었고 늦더위가 찾아온 축제장에 단비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다.

제로플라스틱과 텀블러를 주제로 한 UCC 공모전도 진행했다. 참가자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유튜브라는 비대면 소통 채널을 처음 경험했다. 공모전 시상식은 그린웨이환경축제 기념식에서 열렸다.

제로플라스틱전북은 이제 거점을 늘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 ‘객리단길’에 이은 전주의 전통적인 소비장소인 ‘전북대 앞 상가’를 프랜차이즈로 둘 계획이다. 더불어 전북대학교 안에도 7개의 카페가 있으니, 학내외를 연결하는 사례를 만들기 위해 관계자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제로플라스틱전북이 1회용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만족스럽다. 그러나 모든 1회용품에 대한 대안의 ‘끝판왕’이 아님은 겸허하게 인정한다. 전주의 공유컵이 전체 카페로 확산되고, 익산, 군산, 정읍, 남원, 김제 등 전라북도 전역에서 비슷한 사례가 나오길 기대해본다. 그만큼 제로플라스틱전북은 어느 곳에서나 시도해 볼 수 있는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변형이 얼마든지 가능해서 더 좋은 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작은 시도들이 모여 줄일 수 있는 1회용 플라스틱의 양은 한계가 있겠지만, 무심코 쓰던 1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인식변화에 불쏘시개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진 등(핵심 사진 중심)



Good bye Plastic! 플라스틱 zero 사회를 위한 민간토론회 플라스틱 zero 사회를 위한 민간토론회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객리단길 방문인 설문조사



지구의 날 맞이 객리단길 대행진 및 민간협의체 협약식



제로플라스틱전북 민간협의체 정기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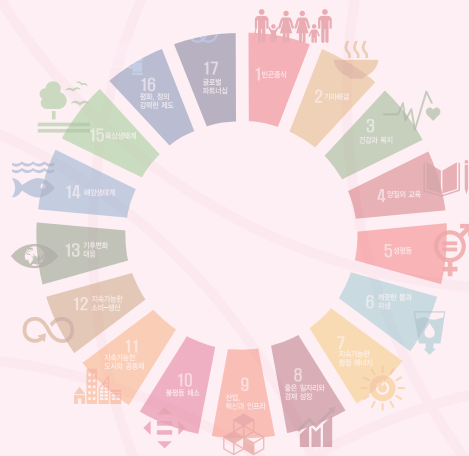
제12회 그린웨이환경축제 'TURN블러 카페' 부스 참여 'TURN블러 카페' 부스 참여



협약업체 지도 및 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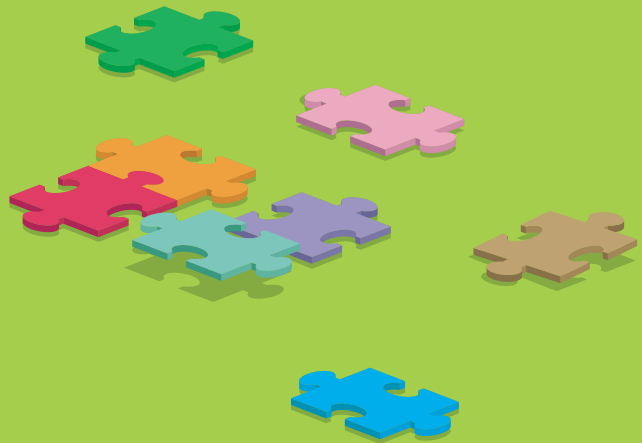


TURN블러 및 증정용 텀블러



03.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 야호아이놀이과
야호 생태(숲)놀이터 조성사업



사업목적 및 배경 ●●●

놀 권리를 잃어가는 아이들

입시중심의 경쟁사회에서 이 시대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심지어 유아기부터 놀 권리를 잃고 살아간다. 왜 공부해야 하는 지 목적도 없이 방과후 시간의 대부분을 학원에 모두 빼앗기며 부모님이 쳐 놓은 울타리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생활한다. 이런 아이들에게서 아이다운 장난기나 웃음소리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아동의 놀 권리보다 학습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부모들은 서로 경쟁하듯 놀이보다 공부를 아이들에게 강조한다.

도시화가 진행되며 아이들이 그림 그리고 놀던 흙바닥에는 건물과 도로가 생겨났고 이를 보상하듯 만들어진 도심 놀이터는 어디를 가나 비슷한 모습에 아이들의 흥미를 끌지 못한다.

어디를 가도 똑같은 놀이터

요즘 아이들이 살아가는 도심 속 어린이 놀이터는 대부분 비슷한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단순하고 획일적인 놀이터로 조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철재, 고무 등 지나치게 인공적인 소재로만 만들어져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져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의 창의성과 모험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부족하다.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아무런 고민없이 놀이기구가 지시하는 대로만 따라 움직이는 놀이터, 이런 지시적인 놀이터가 지금 아이들이 놓고 있는 놀이터의 현실이고 또한 살아가는 현실이기도 하다.

자연이 최고의 놀이터다.

아이들 마음 속 동심을 깨워주는 놀이터는 어떤 놀이터일까?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하면서 놀 수 있는 놀이터, 아이들의 창의력과 모험심을 자극하는 건강한 위험이 있는 놀이터, 갈수록 흙을 밟을 기회마저 잃고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자연감수성을 돌려줄 수 있는 놀이터, 계속되는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는 최적의 장소를 찾았다. '자연', '숲', '생태' 삭막한 도심에서 자연감수성을 잃어가는 아이들이 맘껏 상상하고 뛰어 놀 수 있는 곳, 언제라도 찾아가면 숲

속의 다양한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는 곳, 이곳이 바로 우리가 찾던 놀이터이다. 우리는 이 자연놀이터를 아이들에게 다시 돌려줘서 도심 아이들이 친구들과 숲을 벗 삼아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 그렇게 시작된 게 바로 숲놀이터 ‘야호아이숲’이다.

사업내용 ●●●

공감대 형성을 위한 아이숲 친구 만들기

숲에 있는 놀이터. 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함께 고민하며 걸어가 줄 친구들을 찾았다. 오랜 기간 숲에서 아이들과 놀아 본 경험이 있는 유아숲지도사, 숲을 아이들의 눈으로 함께 바라봐 줄 숲해설가, 아이들의 행동 특징과 놀이 성향을 잘 알고 있는 유아교육기관 선생님, 숲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생태적 요소를 발견하고 놀이터와 어우러지도록 도와 줄 생태환경분야 전문가 등 숲놀이터 필요성에 공감하고 아이들의 놀 권리 확산을 위해 몸과 맘으로 함께 노력해 줄 숲 친구들을 모집했다. 이렇게 구성된 민관협력기구(다울마당)를 통해 전주 아이숲만의 운영철학을 세우고, 이에 맞는 장소와 숲놀이터 조성방법을 논의했다.



사업대상자 현장방문 및 조성방향 논의



준공 후 숲놀이터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먼저 아이들과 함께 숲에서 놀아보자

놀이터의 주인은 아이들이다. 또한 놀이의 주체도 아이들이다. 때문에 놀이터를 만드는데 아이들의 생각을 빼놓을 수 없다. 어른들의 생각만으로 만들어진 놀이터에서 아이들에게 놀기만 하라는 건 놀이의 주체인 아이들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숲놀이터를 조성하기 전에 우리들은 숲에서 아이들과 먼저 맘껏 놀아 보기로 했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 숲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놀까? 형형색색의 도심 놀이터에 길들여져 시시해 하지는 않을까? 우리의 걱정은 숲을 만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일순간에 사라졌다. 초록빛 숲속이 아이들의 시끌벅적한 웃음소리와 뒤엉켜 금새 생기가 돈다. 숲에서 노는 아이들에게는 정해진 놀이공간도 놀잇감도 없다. 아이들이 뛰노는 곳이 모두 놀이터가 되고 아이들이 만지는 나무와 나뭇가지, 나뭇잎, 흙, 물 그 모든 게 놀이기구가 된다.

숲에서 실컷 뛰는 아이들은 처음 만나는 숲놀이터를 상상하며 그림도 그려 본다.



팝업놀이터



놀이터디자인



아이숲놀이터 조성

아이들의 상상을 현실로

아이들이 숲에서 그린 그림과 놀았던 모습들을 통해 아이숲 친구(다울마당)들과 숲놀이터를 구상해 본다. 어딜가나 똑같은 놀이터는 싫기에 장소별 특징을 살려 경사가 있는 작은 언덕에는 널빤지 미끄럼틀도 놓고, 거대한 참나무가 팔을 뻗고 있는 자리에는 2인용 나무그네도 달고, 삼나무가 규칙적으로 심어져 튼튼한 기둥을 역할을 하는 곳에는 넓고 긴 대형 해먹도 설치되었다. 굵은 나뭇가지가 잘 발달된 나무위에는 동화 속 그림같은 멋진 숲속 전망대가 자리하고 있고 전망대와 연결된 로프사다리, 통나무오르기가 아이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더해준다.

이렇게 매년 2개씩 아이숲 놀이터를 아이들 그리고 아이숲 친구들과 만들다 보니 어느덧 10개의 아이숲이 전주에 생겨났다. 숲놀이터마다 호기심 가득한 이름도 아이들과 함께 지어줬다. 참나무가 집단 생육하여 도토리가 많이 떨어

져 있는 숲놀이터는 ‘꼬불꼬불 도토리숲’, 경사진 언덕 소나무숲은 ‘떼구르르 솔방울숲’, 동물원옆 숲놀이터는 ‘땡까땡까 배짱이숲’, 밤송이가 많았던 곳은 ‘알콩달콩 고슴도치숲’ 등 이름만 들어도 숲놀이터가 있는 곳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도록 아이들이 알아서 척척 잘도 지어준다.

살아있는 숲놀이터는 계속 변화한다.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진 숲놀이터는 수시로 그 모습이 바뀐다. 사계절 숲이 변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노는 모습에 따라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변한다. 아이들이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모험심과 건강한 위험을 숲에서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준다. 숲놀이터 가는 길에 어느 날 예쁜 꽃이 피어나고 낡아가던 통나무가 다시 튼튼한 나무로 교체되고 너무 높아 바라만 보던 나무위에는 하늘다리가 갑자기 생겨나기도 한다. 아이들은 이렇게 변해가는 숲놀이터에서 자연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잃었던 감수성을 되찾으며 스스로 자라간다.



평가와 과제 ●●●

숲마다 아이들의 생기발랄 웃음소리가 한가득~

항상 조용하기만하던 숲에 아이들이 줄지어 찾아온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기관의 숲놀이터 단체방문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숲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기관에서 다시 아이숲을 찾는다. 처음엔 숲을 어색해 하던 아이들이 어느 새 숲과 하나되어 놀고 있다. 전주시 곳곳에 만들어진 숲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생기발랄한 웃음소리가 들린다.

아이들의 놀 권리를 걱정하고 도심 놀이터의 한계를 고민하며 아이숲 친구들과 시작했던 숲놀이터가 올해로 5년차를 맞이한다. 이제는 숲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자연스럽다. 주말에 아이들이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의 손을 잡고 도시락 싸들고 숲놀이터를 찾는 가족방문객의 모습, 숲에서 놀다가 넘어진 아이가 다시 일어나 뛰어노는 모습과 그 모습을 웃으며 지켜보는 부모님의 모습도 이제는 자연스럽다. 이런 모습이 숲에서 더 많이 더 자주 보였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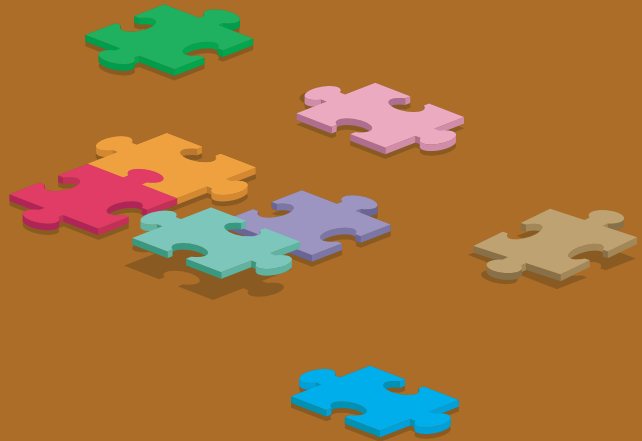
전주의 모든 숲이 아이숲이다.

집 가까이에 있는 숲에 가서 맘껏 놀 수 있다면 굳이 숲놀이터를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사실 숲놀이터에는 놀이시설이 필요없다. 자연 그대로가 아이들의 최고의 놀이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심 놀이터에 익숙한 아이들이 숲에서 그냥 놀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아직은 아이숲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아이숲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전주의 모든 숲을 놀이터처럼 느끼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선 숲놀이터 홍보와 부모교육이 급선무다. 숲을 위험한 장소로만 인식하는 아동기관과 부모님이 아직도 많기 때문이다. 건강한 위험에 아이들을 노출시키기보다 온실에만 가두어 키우려는 마음이 여전히 더 크다.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더 많은 기관과 방문객이 아이숲을 찾아와 숲놀이터의 긍정효과를 경험하고 필요성을 전파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난 5년간 아이숲을 통해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04.

경상남도 · 경상남도의회 지속가능발전연구회 · 경상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빠른 전환
“지방의회가 함께하면 SDGs가 빨라집니다”



사업목적 및 배경 ●●●

소멸위기 지방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도 어려워

경상남도는 2017~2018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원탁회의 개최 등으로 기초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기구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도시가 늘어나 통영시(2018), 진주시·김해시·양산시(2019)에 협의회가 설치되어, 도내 시 지역은 8개의 전 도시에 추진기구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10개에 달하는 군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지역이자 기후위기대응 취약지역임에도 지방재정의 열악함 등을 이유로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에 참여를 꺼리는 상황이다.

제도의 뒷받침 없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지방정부의 정책목표로 될 수 없다

지난 3년간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수립과 관련하여, 11회에 걸친 민·관 원탁회의와 2017년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이행평가지표 개발', 2019년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지속가능성 연구용역' 등 2차례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했으나, 관련 제도의 뒷받침이 없어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경상남도의 정책목표로 채택되는 과정에 이르지 못하고 추진 논의만 이어졌다.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대로 만들자

때문에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행계획, 지속가능보고서 등 경상남도의 지속가능발전체계를 제도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군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함께 담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사업내용 ●●●

경남도의회 지속가능발전연구회의 활동이 시작되다

10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된 경상남도의회 지속가능발전연구회(2018년 11월 설립)가 포럼과 간담회를 거쳐 2019년 핵심활동과제를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결정하였다.

〈 경남도의회 지속가능발전연구회 설립과정 〉



그리고, 1월 개최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로 의정활동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연관성에 대해 이해가 높아진 연구회는 이후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의 워크숍에 직접 참여하여 경남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시·군 지원 필요성을 공감하고,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의 틀을 잡다

연구회가 주축이 되어 7월에 열린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는 도의원 21명이 참석하는 등 도의회 본회의를 연상케 할 정도로 의원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진행되었다.

전담부서 설정, 시·군 지속가능발전 추진 예산 지원 등을 내용으로 제안된 기본조례의 초안을 검토하고 이것이 향후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큰 틀이 이 토론회에서 정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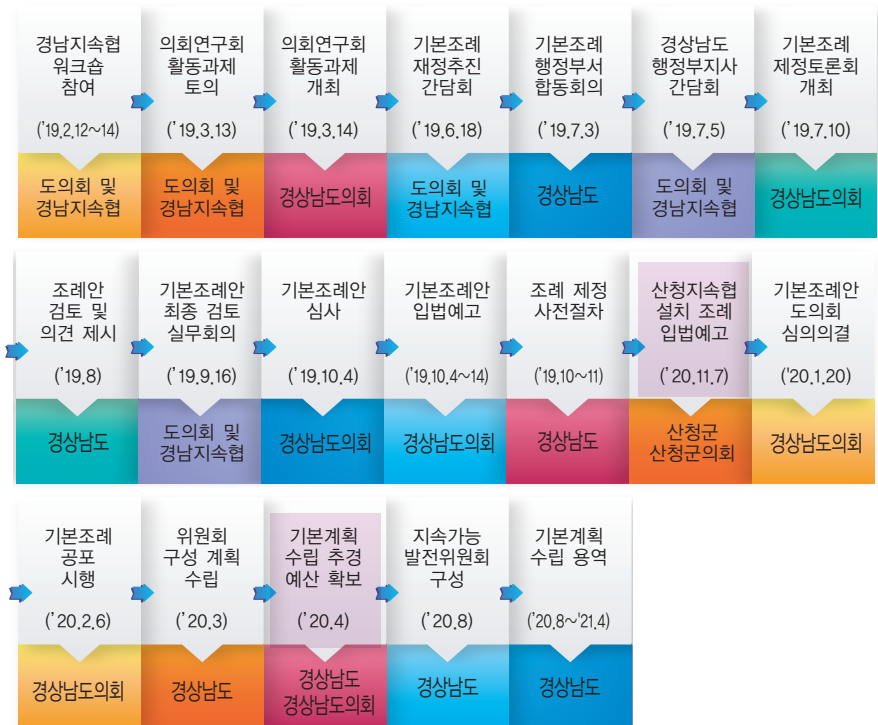
행정과 의회 · 거버넌스 간의 이견 좁히기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빠른 전환 "지방의회가 함께하면 SDGs가 빨라집니다."

기본조례 추진에서 행정과 의회·거버넌스간의 이견이 생긴 부분은 전담부서를 기획조정실로 설정하는 부분과 시·군 지원에 대한 조항이었다.

행정부지사, 도의원, 경남지속협 임원, 기획조정실장, 환경산림국장 등이 참여한 행정·의회·거버넌스 간담회를 통해 전담부서 설정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고, 이후 실무회의를 통해 시·군 지속가능발전 지원 조항의 삭제에 대한 행정의견에 대해 조정하는데 있어, 지속가능발전연구회의 역할이 매우 컸다.

결과적으로는 전담부서의 설정은 지방정부의 권한이고 도지사의 양해 요청에 따라 최종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시·군 지속가능발전 지원은 도지사의 책무에도 넣고, 별도의 조항(제21조)으로 명문화하게 되어, 기본조례안을 최종 발의하게 되었다.



이 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 조치 계획도 함께 수립하게 되었는데 전액 도비 지원을 전제로 2024년까지 3억 8,000만원(연평균 7,600만원)이 소요되고, 시·군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및 협의회 구성을 위한 원탁회의 개최 등 지원뿐만 아니라, 시·군 협의회 등 민간활동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게 되었다.

지역 SDGs,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의 시작
2030 지역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약속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지방의회 회의에 참석한 우리는 대회의 취지에 공감하며, 시민들과 함께 협력하며 다음의 약속을 실천할 것을 약속한다.

1. (가치) 지속가능성을 의정활동의 중심 가치로 한다.
2. (이행)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활동 과제의 우선순위에 둔다. 특히, '2030 지역지속가능발전실현을 위한 약속' 을 적극 지지하며, 이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한다.
3. (2020 공동행동)지방정부단위 지속가능발전추진체계 구축의 중요한 기반인 조례가 '지방정부의 책무,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간 협력, 광역과 광역의 협력, 국가와 지방정부간 협력, 글로벌과 지역을 연계하는 국제 협력, 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 그룹의 참여와 협력, 적극적인 시민 인식증진' 등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아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

2019년 9월 26일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지방의회 회의 참가자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다

이후 지속가능발전연구회의 시·군 협의회 현장활동 공식방문과 지속가능한 경남을 위한 2019 교류협력워크숍 공동 주최 등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와의 협력과 연대활동을 강화해 나갔다.

특히 교류협력워크숍에서는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의 성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시·군의 이해를 높이고 시·군 지속가능발전 촉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되었다.

앞으로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 시·군 확장에 있어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와 민·관 거버넌스와 함께 한 축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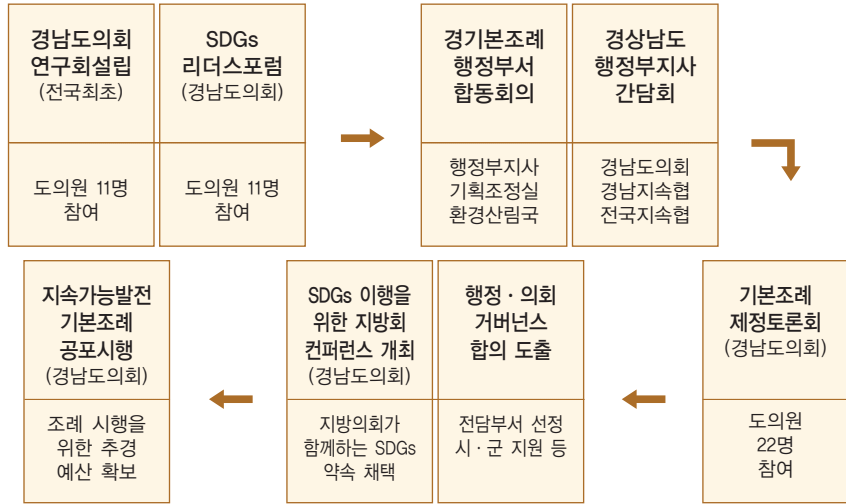
평가와 과제 ●●●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어, 민·관 합의를 통해 광역형 지속가능발전 제도를 만든다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의 제정 과정은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어, 민·관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광역형 지속가능발전 제도의 기초를 닦았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시·군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활동 지원 근거와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게 된 부분은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다.

“시·군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견인하는 광역자치단체 책임 의무화”
행정·의회·거버넌스 의견 합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정책 제도화
지방의회가 지방 지속가능발전 추진 주체로 등장하는 혁신의 과정



지방의회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관계자이자 이행파트너로 전면 등장

그리고, 경상남도의회가 지방의회 컨퍼런스를 통해 채택한 ‘미래세대를 위해 지방의회가 함께하는 SDGs 약속’은 지속가능성을 의정활동의 중심 가치로 두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활동 과제의 우선 순위로 한 의정활동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지원할 것을 선언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빠른 전환 "지방의회가 함께하면 SDGs가 빨라집니다."

사진 등(핵심 사진 중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



2019 경상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워크숍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토론회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토론회



SDGs 이행을 위한 지방의회 컨퍼런스



SDGs 이행을 위한 지방의회 컨퍼런스



경상남도의회 지속가능발전연구원 현장방문



지속가능한 경남을 위한 2019 교류협력워크숍

05.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도시 도봉』은
‘민관협치’로 UP



사업목적 및 배경 ●●●

민·관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협치도봉 구현하려면?

도봉구는 지난 2016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지속가능한 협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이 주도하여 이끌어가는 형태가 되지 않고 구민과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협치를 통해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는 등 생색내기식의 단순한 주민참여가 아닌 행정의 전 과정을 함께하며 권한을 나누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도봉사랑시민모임”, “도봉구시민단체협의회”, “도봉구시민사회복지네트워크” 등 다양한 포맷의 시민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정책적 사업에도 참여함으로써 구정의 ‘파트너’로 인식하였다.

속의 공론이 전제화된 계획 기반형 협치 과정 확대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구현

협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봉의 구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것을 행정의 정책과 사업으로 함께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도봉구는 매년 공론장을 열고 구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어떠한 대안이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동계획, 공동실행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또한 구정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도시 도봉’을 추진하고자 환경·에너지, 다문화, 고령화 등 복잡·다양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적 실행방안을 지원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사업내용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 제도의 기반을 구축하고 협치 역량을 강화하자

도봉구는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치의제로 발굴하기

위해 지역사회 이슈 분석 및 다양한 주제의 공론장을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찾아가는 공론장, 주체별 공론장, 이슈별 공론장, 계획수립 공론장, 동 단위 연계 공론장, 협치 의제선정 공론장(50+원탁회의) 등이 있으며, 의제별 포럼과 워킹그룹도 함께 구축·운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씨앗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역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에도 노력하였다. 양성된 퍼실리테이터가 협치 의제 발굴을 위한 공론장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역할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협치 문화를 정착시키고 협치 가치의 확산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을 활용한 홍보에도 노력하였다.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협치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협치도봉 유튜브채널과 페이스북을 실시간으로 업로드하여 소통에 힘썼으며 협치도봉 홍보물 제작 및 찾아가는 홍보 부스 등도 활용하였다.

“지속가능발전도시를 위한 문제해결”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도봉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어르신, 여성, 청소년 등 다양한 세대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힘을 써왔다. 우선 어르신과 연관된 문제로는 마을과 마을이 돌보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고, 취약계층 집수리 및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지원,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어르신 영양죽 배달 및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청소년과 일대일 멘토와 멘티를 구성하는 행복+도봉 복지 캠퍼스를 운영하였다.

또한 여성과 아동을 위해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하여 지역 내 공동육아 자조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한 육아 공간 제공 및 지역특성, 자녀 연령, 이용자 욕구 등을 반영한 맞춤형 양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협치 네트워크를 통해 관내 인적이 드문 골목 등 안전사각지대에 태양광 표지병 등을 설치하여 여성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여성안심모람길’을 조성하고 이러한 사업의 조사, 실시, 사후 모니터링까지의 모든 과정이 협치를 통해 진행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지속가능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청년을 위한 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도봉구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서울 인권여행을 통해 자기 주도적인 이해와 체험을 수반하여 통합적인 인권의식 함양에 힘썼다. 여기에는 학교와 인권단체, 청소년이 다함께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그리고 빈 교실을 리모델링하여 학교에서는 다양한 정규수업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방과 후에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체험의 열린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협치 꿈빛터’를 진행하여 청년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문화도시, 음악도시 도봉을 함께 누리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관내 청년벤처의 자율적·자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청년벤처를 멘토로 하고 청년창업가를 멘티로 하여 진로 멘토링도 운영하며, 도봉 청년 사업장의 소개 및 홍보를 위한 SNS를 개설하였다.

평가와 과제 ●●●

협치로 이루어낸 ‘지속가능한 도봉’

협치와 함께하며 ‘지속가능한 도봉’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해 온 많은 과정은 tbs TV에서 이웃과 소통하는 마을 활동가들의 다양한 지역 활동 사례로 소개되거나 서울시 인재개발원 국제연수팀이 민·관협치 우수사례로 탐방을 오는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도봉구는 기존의 사업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던 주민의 참여권한을 사업 발굴·선정·실행·평가의 전 과정을 민과 관이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확대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며 이후에도 더 많은 주민이 ‘행정을 함께 하고 있다’는 체감을 할 수 있는 협치 정책과정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의 열매를 맺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 도시 도봉

올해 UN대학으로부터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RCE)로 선정된 도봉구는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으며,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

하는 국내·외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용 ‘도봉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교재’ 발간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 모든 과정에도 지역주민, 학생들이 함께 교재제작에 참여하고 모니터링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도봉구의 지역특색을 담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목표로, 교사와 학생들, 더 나아가 시민들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지속가능발전교육을 쉽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할 지속가능발전 교재발간을 시작으로 지속가능발전도시 도봉구는 더 큰 비상을 꿈꾼다.

사진 등(핵심 사진 중심)



협치도봉활동공유회 협치열다



협치 공론장



도봉구 협치사례 인재개발원 활용



협치 꿈빛터



어르신과 함께하는 복지협업체



꿈빛터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우수상 수상





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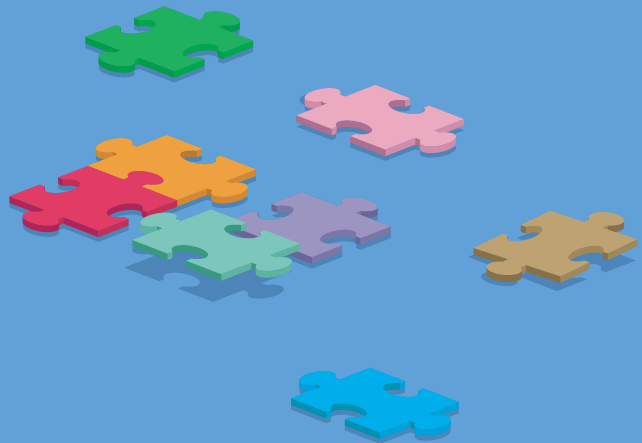


06.

서울특별시 종로구

— 종로형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구축 —

“역사와 자연을 품은
내일이 더 행복한 지속가능 종로”



사업목적 및 배경 ●●●

우리는 지금 행복할까?

대한민국은 오랜 식민시기, 그리고 6·25 전쟁으로 사회 경제의 기반과 국민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전후 경제의 재건은 식민지배에서 벗어나는 것만큼 험난한 길이었습니니다.

처음에는 선진국들의 원조에 의존해 복구와 재건에 힘썼고 경공업, 중화학공업, ICT 산업을 차례로 육성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고 시장경제 규모 10위권, 국민소득은 연 3만 달러에 육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눈부신 경제성장을 한 대한민국은 과연 행복할까요?

2015년 OECD 국가들의 행복지수를 보았습니다. 34개국 중에 우리나라는 32위였습니다.

종로구는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잘 사는데 왜 불행할까?’

행복을 찾는 첫 걸음, 그리고 SDGs와의 만남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상선약수(上善若水)」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낮은 곳을 채우며 지나간다.”

우리 행정도 가장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부터 행복을 찾아보려고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로구라고 하면 주요 행정기관, 수많은 빌딩숲, 4대궁을 비롯한 역사문화유적으로 가득한 대한민국 1번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화려한 도시 종로의 이면에는 2평도 채 안 되는 작은 공간에서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고 취사시설과 샤워는 꿈도 못 꾸는 돈의동 103번지 일대, 쪽방촌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로구의 최초의 시도는 ‘누구나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만들어보자’ 였습니다.

「새뜰마을 프로젝트」 라는 이름으로 공동 목욕탕·세탁실·취사시설 등이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수리를 지원하고, 모두가 함께 사는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시키

고자 했습니다. 많은 주민들과의 소통, 전문가들의 자문, 행정의 노력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면서 작지만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추구하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났습니다. 새들마을 프로젝트에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더하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 아니라 빈곤퇴치라는 사회 안정,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라는 경제발전,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라는 환경보전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프로젝트로 한층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계기로 모든 구정 정책에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함양하는 종로형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를 수립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내용 ●●●

지속가능발전 준비하기

UN에서는 전 인류가 중점적으로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정하고 실천해 나가고자 했으나, 지역의 다양한 여건과 특성, 시급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맞춤형 목표로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종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SDGs를 본격적으로 수립하기 전 우리가 추구해 나갈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4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1. 종로구의 핵심적인 경제, 사회, 환경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둔다.
2. 행정의 일방적인 추진보다 주민, 기업과 함께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3. 캐비넷 보고서가 아닌 종로구의 특성을 반영한 중점목표를 세운다.
4. 행정, 주민, 기업이 소통하며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만든다.

그 다음 단계는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종로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의무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2018.05.25.).

이를 기반으로 경제·사회·환경 등 분야별로 다양한 시민단체, 전문가와 국장급 이상 간부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 기획예산과의 단일업무로 수행되었던 지속가능 관련 업무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지속가능국을 신설하고 총괄적 구심점 역할 및 핵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환경과에 지속가능도시팀을 신설했습니다.

주민의 생각이 종로구 지속가능방향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염두에 둔 것은 행정의 일방적 정책이 아닌 주민들과의 소통과 참여로 다양한 목소리를 모두의 지속가능발전 가치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기존부터 계속적으로 존치했던 일반 주민단체도 있었지만 종로의 새로운 발자취를 함께할 자발적 정책참여 의지를 지닌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여 지속가능종로 정책참여단을 구성했습니다.

상호 수평적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위한 원탁형 구조로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공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종로의 지속가능정책에 구체적인 의견을 모으고 주체적으로 정책의제를 발굴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협력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 실현을 우선하는 사고관을 정립하게 되었으며, 정책 결정자의 입장에서 의제를 선정하면서 행정의 입장을 이해하는 민관의 상호신뢰성을 높이는 성과도 따라왔습니다.

당초 정책참여단은 계획 수립에 한정된 일시적 조직으로 구성하였으나 적극적 참여활동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중점 사업 달성을 위한 의제 발굴 등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주민 참여 조직으로 공고하고 협력적인 거버넌스 기반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와 자연을 품은 내일이 더 행복한 지속가능종로

2019년은 종로구가 지속가능발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원년이었습니다. 대대적인 행정조직 개편, 수차례에 걸친 위원회의 검토, 정책참여단의 열

면 토의, 지역 전문가들과의 FGI, 주민들과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토대로 종로만의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비롯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55개의 세부목표, 196개의 단위사업, 57개의 지속가능발전지표가 수립되었습니다. 특히,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과 직원들의 의견수렴,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지속가능발전 5대 중점목표를 선정하여 지역특화형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완성시켰습니다.

비전	역사와 자연을 품은 내일이 더 행복한 지속가능종로			
구성	17개 목표	55개 세부목표	196개 단위사업	57개 지표
	기본계획(2020-2024)		이행계획(2020-2021)	지속가능성 평가



그리고 종로의 지속가능발전을 행정 내부의 결과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전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위한 공유의 장, 그리고 주민의 결정으로 만들어진 비전 선언을 통한 미래 방향에 대한 결의의 장을 만들고자 일반 주민은 물론 구 소재 기업인, 직능단체·유관기관들과 한 자리에 모여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주민·기업·행정이 각자의 영역에서 잘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을 함께 만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우리의 약속’을 결의하고 다짐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는 등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평가와 과제 ●●●

주민참여형 정책거버넌스 모델 제시

실효성 있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서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 작동이 우선과제로 기존 민간단체가 아닌 자발적 조직인 「지속가능종로 정책참여단」을 구성하여 주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최초 기획단계부터 최종 수립까지 정책참여단은 정책생산의 주체로 참여하여 비전을 직접 결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정책을 만들어냈으며 그 결과물로 비전 선포식, 정책 수립보고서 발간자료에 개개인 이름이 모두 등재되는 등 정책수립 주체로서 성취감 제고를 통해 단발성 참여가 아닌 지속적인 정책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기존 주민참여단의 단순 참여를 넘어 정책형성·집행·평가 및 환류에 이르는 정책과정 전반에 대한 양방향 소통으로 주민과 행정 간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전환해 진정한 지속가능발전 추진 프로세스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참여단의 활동은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종로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등 규정 주요정책 수립과정에 주민참여방안 모델로 확산되고 있으며 타지자체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해결관점 사업에서 통합적 관점의 융합형 사업 추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당면한 문제해결만이 능사가 아님을 인지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들이 연계되어 통합적 시각에서 접근토록 이행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목표 달성과 사업 추진의 관계를 1:1이 아닌 n:n의 관계로 확장하여 부서별 개별 사업이 단위사업 성과로 종결되지 않고 상호간 영향을 주는 연계성을 강조하여 통합적 관점의 융합형 사업 추진 매커니즘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종로구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건강하고 행복한 웰빙도시’ 구현에 있어서 이 목표는 단순히 건강도시과만의 업무가 아닌 전 부서의 공통목표임을 분명히 하여 21개 부서가 소극적 양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협력적 사업을 추진하여 통합적 관점의 정책 수행체계를 구축한 것은 대표적인 융합형 사업 추진사례입니다.

그 외에도 규정 주요 정책방향인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전통문화 보전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지속가능성’에 두고 전 부서가 하나

가 되어 지속가능 종로를 구현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생활속에 스며드는 지속가능발전 확산

실질적인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려면 지역사회 구성원의 실천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가 수립됐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지역사회 전체로 확장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점진적으로 행정 스스로 실천하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민·관·산이 모여 주체별 ‘지속가능종로를 위한 우리의 약속’을 정하고 다짐한 바 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2020년에는 전국 최초 친환경 인쇄지침을 시행하여 행정 내부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중입니다.

또한 주민, 기업, 그리고 학계와 함께하는 기후행동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1인이 1년간 온실가스 1톤을 줄이자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는 생활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동시에 100만 그루의 수목을 생활권에 집중 식재하여 미세먼지와 도심온도를 낮추고 산소농도를 높이는 푸른 도시 종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활 속에 스며드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실천하여 역사와 자연을 품은 내일이 더 행복한 지속가능종로를 완성해 나가 고자 합니다.

사진 등(핵심 사진 중심)



중로구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속가능중로 비전선포식



지속가능중로 정책참여단 위촉식



정책참여단 워크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자문회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회의



지역전문가 FG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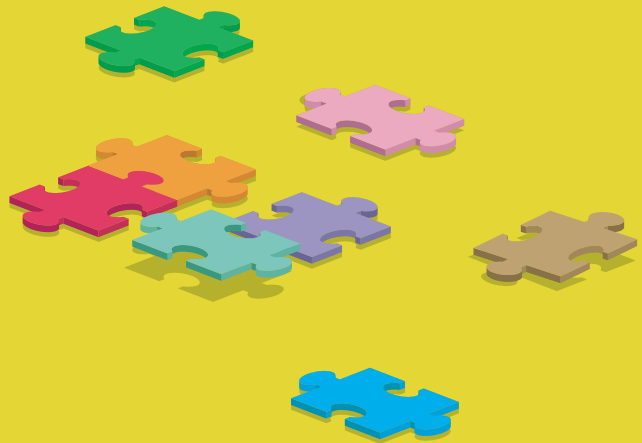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경남을 위한 2019 교류협력워크숍

07.

경상남도 김해시

인간과 지구의 영원한 공존을 위한
김해형 SDGs 거버넌스 구축



사업목적 및 배경 ●●●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사회로의 전환

김해시는 우리나라의 동남단, 경상남도의 동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넓은 김해 평야와 낙동강이 흐르고 있다. 경남도 내에서 두 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도농복합도시로, 2019년 기준 인구는 561,468명, 기업체 7,522개이며, 인구수와 기업체수가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산업공단, 농공단지 조성 등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공장 등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다량 발생하고 있었으며,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로 도시유역 홍수, 지하수고갈, 하천건천화, 수질·수생태계 악화, 열섬 현상 등이 나타나는 등 회복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지구환경보전이 기본원칙을 규정한 리우선언을 발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담은 환경실천계획 『의제 21』을 채택함에 따라 김해시는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방의제21』 실천을 위해 2000년 12월 “푸른김해21 및 김해환경헌장”을 선포하게 되었고, 2004년 12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를 설치하였다. 2018년 8기에 이르기까지 30명으로 조직된 정책 및 실천분과위원회를 구성, 김해시녹색성장종합계획 및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활동을 하였으며, 녹색생활실천 확산을 위해 푸른김해21공모 사업을 민간 대상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제70차 유엔총회(15. 9.)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으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를 기존 환경분야 “의제21”에서 사회, 환경, 경제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로 채택함에 따라, 전 지구적 과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하여 국제사회, 정부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하는 등 경제, 사회, 문화,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이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인 김해시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게 된다.

연 도	추진내역
1992. 6.	UN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의제21 채택
2014. 12.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 발족 ※ 제1기 위원 : 30명
2015. 9.	UN총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17개 목표) ☞ 교육, 기후변화, 생태자원, 수자원, 도시환경, 산업, 생산/소비, 에너지 등
2018. 9.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업무추진 방침 수립
2018. 12.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공포 [푸른김해21 →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명칭 전환]
2019. 1.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공개모집 · 선정위원회 구성
2019. 2.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창립총회 및 선포식

사업내용 ●●●

지속가능발전 운영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다

2015년 9월 UN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주요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채택하였다. SDG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이행주체가 ‘We The People’ 임을 강조하고 중앙·지방정부·시민·기업 등 각 계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이에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 대한민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 지방화를 추진함에 따라 김해시도 지속가능발전 이행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김해시는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2018.12.28.)하였으며, 푸른김해21 추진협의회를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전환하였다.

2019년 1월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공개모집을 하였으며, 2019년 2월 공동의장단, 1개 운영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생태환경, 지역경제, 보건복지, 교육문화, 마을공동체) 체제의 협의회 위원(70명) 위촉과 함께 지속가능발전도시 김해로의 선포식을 갖고 출범하였다. 위원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해시는 협의회를 통해 김해형 SDGs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지속가능발전 사회를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시 예산은 2019년 95백만원, 2020년 91백만원을 편성하여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지속가능발전 공모사업 추진, 교육 및 홍보 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9년 3차례 운영위원회를 개최, 사업예산 심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 확정하였으며, 생태환경분과외 4개 전문분야로 구성되어 있는 분과위원회는 분과별 활동을 29차례 실시하였다. 각 분과별 실천과제 설정 및 김해형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 수립·추진 활동 참여 등 2019년 협의회 출범 원년부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불모지에 교육의 단비를 뿌리다

김해시는 지속가능발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2018 환경교육 김해선언」”을 통해, 흥익인간 교육 이념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 타당성을 나타낸 바 있으며 2019년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이어져 왔다. 김해시의 지속가능발전 교육은 환경교육에 그치지 않고 경제, 환경,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차별 없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김해시와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 김해 조성을 위한 인식 전환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가치공유 및 직원·시민 교육 및 홍보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의 당위성을 전 시민에게 알리고 있다.

첫째, 지속가능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중점 추진하였다.

김해시는 지속가능발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직원 역량강화 교육, 협의회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가야문화축제 부스 활용 시민과 공무원에게 지속가능발전목표 홍보하였다.

둘째, 김해시지속가능발전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김해시는 2019년 제1회 지속가능발전대학을 개설, 시민대상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41명이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제1기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2020년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 처음학교 강사를 선발하여, 교육전문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 처음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김해시와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 이해 조기교육을 통한 교육효과 극대화 도모 및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로 생활 속 지속가능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 처음학교(이하 처음학교)’는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대상별 맞춤형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교육이며, 유치부, 초중등

부, 성인부를 대상으로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지속가능발전 이해 및 생활 속 참여 방법을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처음학교 강사는 지난해 추진한 제1기 지속가능발전대학 졸업생 41명을 대상으로 유치부 4명, 초중등부 3명, 성인부 3명 등 총 10명을 선발하였으며, 특별교육을 실시 후 파견강사로 교육현장에 투입 중이다.

시민의 목소리를 김해형지속가능발전목표(G-SDGs)에 담다

김해시는 시정 전 분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해형지속가능발전목표(G-SDGs)를 시민과 함께 수립하였다. 시는 시민대표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가야문화축제 등 대시민 홍보를 통하여 김해 SDGs 수립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도출되었으며, 공무원들의 협업으로 이행계획을 완성했다.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김해형지속가능발전목표는 ‘함께 만드는 내일, 살고 싶은 행복도시 김해’를 비전으로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동해 경제적 취약 계층 없는 도시, 더불어 건강한 도시, 일자리가 넘치는 역동적인 경제도시, 자연이 숨 쉬는 생태환경도시 등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57개 전략, 201개의 단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김해시는 부서간 협업과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통해 경제, 환경, 사회, 문화를 융합적으로 고려한 정책과제 도출과 더불어 실천, 평가 로드맵을 통해 시의 꾸준한 노력과 사회, 기업, 행정 등 주요 주체들 간의 협업적 실천으로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하는 마음을 시민과 함께 나누다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타 위원회와 차별성 있는 분과실천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시민과 함께 실천하고, 위원들 간의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

협의회 출범 2년차를 맞이하여 시범으로 실시하는 분과실천사업은 5개 분과위원회의 특성을 담겨있다. 먼저 생태환경분과는 전 위원이 참여하여 우리 동네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분과는 관내사회적 경제조직 탐방과 이해 사업을 지역주민 3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분과는 소외된 마을 경로당을 6개소를 대상으로 내부모임을 부탁해〈찾아가는 신나는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건강, 심리상담, 미용, 사진촬영 액자

제공 등을 한다. 교육문화분과는 SDGs 청소년 원탁토론을 언택트 온라인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청소년의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 주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분과는 “마을(속) 마을(밖) : 속밖을 벗어난 이야기 치유책이 되다” 사업을 추진, 마을의 유래, 전설, 문화재 등을 찾아 김해만의 지속가능로컬 콘텐츠를 제작하여 연말 분과실천사업 합동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민간대상 공모사업을 발굴, 19년도에는 5개 단체, 20년도에는 11개 단체가 교육, 문화, 환경 사업 등을 통해서 김해형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하고 있다.

평가와 과제 ●●●

인간과 지구 영원한 공존, 미래세대와 함께 나누다.

김해시는 지속가능발전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하여 지속가능발전 제도를 마련, 김해시지속가능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시는 인식 전환을 위하여 공무원교육·시민교육을 실시, 김해형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였다. 2019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으로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김해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김해로의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제1기 김해시지속가능발전 대학’ 에서 배출된 졸업생 중 10명을 선발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전문가로 양성했다. 선발된 강사는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 처음학교’ 유치부, 초중등, 성인부 등 교유기관, 단체에 ESD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아이들을 비롯하여 전 시민에게 지속가능발전 인식전환과 목표실천을 위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경제발전부분에서 일자리창출, 자연자원 가치 존중, 경제효과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사회통합부분에서 빈부격차 등의 양극화 해소, 사회갈등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를, 환경보존 부분에서는 자원소비를 최소화하고 자연생태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해형지속가능발전목표 (G-SDGs)〉

위기의 지구를 향한 최고의 백신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실천이다.

김해시와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회복력 있는 도시, 지속가능발전도시 김해 조성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수립한 김해형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반복되고 있는 위기의 지구, 시민을 지키는 또 다른 힘은 시민과 공무원이 공동으로 만든 지속가능발전 목표인 김해형 SDGs 이행이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2030년 비전인 ‘함께 만드는 내일, 살고 싶은 행복도시 김해’ 를 향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 피드백할 것이다.

사진 등(핵심 사진 중심)



제1기 김해시지속가능발전대학 졸업생 배출



협의회 정기총회, 비전선포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가야문화축제 부스 운영 홍보



김해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시민과 함께 수립



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산청 동의보감촌)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 처음학교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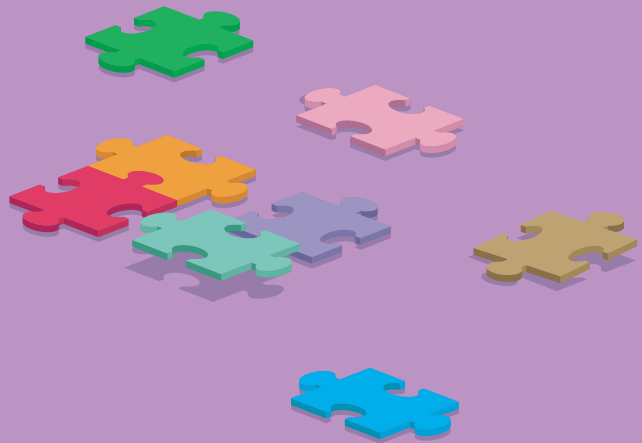
우리동네 미세먼지 모니터링(분과실천사업)

08.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과 함께하는

SDGs 이행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목적 및 배경 ●●●

지속가능발전 가치,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구민과 함께 고민하다.

강북구 지속가능발전사업은 1972년 「성장의 한계」 보고서에서 지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민과 함께 고민하게 되었다. 구정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정과 구민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강북구의 구정방향인 역사·문화·관광도시, 교육도시, 안전도시, 열린도시, 녹색도시, 발전도시, 복지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이러한 구정 방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현해 나아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현세대의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일 것이다.

강북구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관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통하여 2019년 3월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다. 구민의 주도적인 참여로 구정 주요정책을 수립하여 강북구 실정과 주민의 삶과 부합하는 과제를 추진하여 생활과 밀착된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강북구 주민참여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무원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협력적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강북구 각종 종합계획에 SDGs 가치를 담아 구정 전반에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반영하였다.

사업내용 ●●●

구정 전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기반을 마련하다.

강북구는 환경보전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 등 각종 종합계획에 SDGs 가치를 반영하였으며, 업무의 실행력을 담보하고자 2017년 7월 행정조직 내에 지속가능발전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로 도시재생과 지속가능발전팀을 신설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

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정 전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7년 10월 ‘서울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제도적 기반도 구축하였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로 지속가능발전사업을 실행하고 조정하는 전담기관과 심의·자문기관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발족하여 거버넌스 조직을 마련한 바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해 예산지원, 교육 및 홍보지원 등 거버넌스 조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북구 미래상 실현을 위해 노력하다.

강북구는 경제·환경·사회적 필요로 인구감소와 독거노인 비율의 증가, 경기불황의 지속, 높은 비만율·우울감 수치, 환경오염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강북구 미래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 번째 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강북구 일자리대책을 추진하여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두 번째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강북구 환경보전계획으로 대기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세 번째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강북구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 추진으로 모든 주민의 몸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북구 SDGs 이행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다.

강북구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이행계획을 기초로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통하여 2019년 3월 강북구의 지속가능발전 비전(주민의 삶이 행복하고 미래가 활기찬 강북)과 함께 강북구의 특색을 담은 17개 목표, 50개 전략, 93개 이행과제, 327개 단위사업을 포함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총 47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확정·공표하여 지속가능발전 평가를 위한 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협력적 민·관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다.

강북구의 실정에 맞고 주민의 삶과 부합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위해 강북구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단을 공개모집하고 기본교육과 주민참여단이 생각하는 강북구의 미래상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밀착형 강북구의 지속가능발전 비전 및 목표를 도출하였다.

민간전문가와 주민대표, 공무원으로 구성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민·관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한 후 직원교육과 지속가능발전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부서 및 민·관의 협업으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의 핵심가치인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비전·기본전략 도출하였으며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과정에 담당 부서와 위원회 심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을 완료하였다.

평가와 과제 ●●●

미래세대를 위한 조화와 균형 속의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다.

강북구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은 구민의 주도적인 참여로 구정 주요정책을 수립하여 강북구 실정과 주민의 삶과 부합하는 과제를 추진하여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강북구 주민참여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무원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협력적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강북구 각종 종합계획에 SDGs 가치를 담아 구정 전반에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반영하는데 기여하였다.

강북구와 강북구민이 함께 성장하며 만든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를 위한 조화와 균형 속의 발전을 실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강북구는 구민이라는 최고의 동반자와 함께 구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반영하여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부서별 협업과 소통으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강북구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은 지속가능성의 선순환 업

무체계를 도입하고자 만들어졌으며, 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정책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의 역할을 할 것이다. 구정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47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지표(환경분야 15개, 사회분야 12개, 경제분야 10개, 추진기반분야 10개)를 관리하여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제 강북구는 부서간의 협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사회단체·지역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발판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인권 강화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에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사진 등(핵심 사진 중심)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비전 및 목표(강북 SDGs)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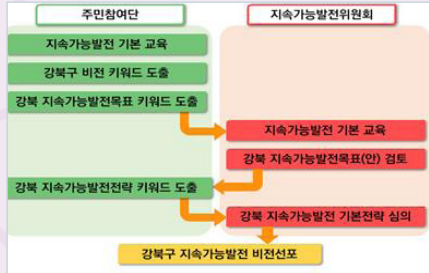
주민참여단 키워드 도출 워크숍



지속가능발전 주민참여단 집중워크숍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식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흐름도



전 직원 대상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교육



강북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추진계획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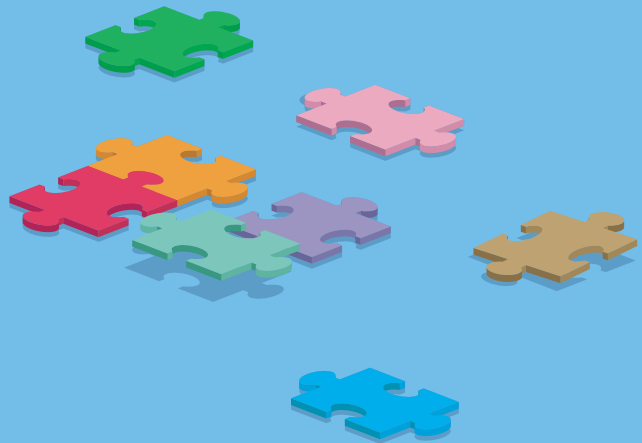
기업



09.

인천항만공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해양환경 보전,
국내 최초 항만분야 미세먼지 저감 성과 달성



사업목적 및 배경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해양환경보전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국내최초 항만분야 미세먼지 저감 성과 달성

인천항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최인접항만으로서 주요 해상교역의 중심지로 과거부터 수도 서울의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해 왔으나,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 급부상으로 지역사회와의 호흡권,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요구받는 등 환경보전과 경제적 발전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항만공사는 지속가능한 인천항 조성을 위하여 인천 지역사회(시민, 학계, 공기업, 지자체, 정부)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항만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SDGs와 연계하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주요 구성원과 함께하는 항만지역 해양환경 보전 활동 및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추진하면서 인천항의 효율적 관리와 항만물류 산업의 발전에 힘쓰는 한편, 공공기관으로서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해 지속가능한 기업,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이 숨쉴 수 있는 권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해양환경보전에 앞장 서게 되었습니다.

Goals	IPK 주요 활동
5 청정환경과 에너지 전환 실현 청정환경은 행복과 번영에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배경입니다.	해상분야가 청정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2020년까지 목표 달성률까지 제로 2020년 해상분야가 청정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2020년 목표 달성률까지 제로 2020년 해상분야가 청정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2020년 목표 달성률까지 제로
8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제공 지속가능에너지는 산업의 성장, 경제, 인구수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온·오프라인 2020년까지 목표 달성률까지 제로 2020년 해상분야가 청정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2020년 목표 달성률까지 제로
9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및 번영의 일자리 제공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사회적 형평성, 환경, 혁신,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온·오프라인 2020년까지 목표 달성률까지 제로 2020년 해상분야가 청정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2020년 목표 달성률까지 제로
11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사회기반시설은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온·오프라인 2020년까지 목표 달성률까지 제로 2020년 해상분야가 청정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2020년 목표 달성률까지 제로
13 국가 내 국가 간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는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온·오프라인 2020년까지 목표 달성률까지 제로 2020년 해상분야가 청정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2020년 목표 달성률까지 제로
14 해양, 바다, 해양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 해양은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온·오프라인 2020년까지 목표 달성률까지 제로 2020년 해상분야가 청정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2020년 목표 달성률까지 제로

사업내용 ●●●

대한민국의 발전과 함께한 인천항, 지속가능한 에코포트(Eco-port)를 꿈꾸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을 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친환경경영방침, 경영규정 등을 제도화하고, 경영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가능한 에코포트를 구축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앞서가는 친환경 경영활동에 주목하였으며, 국내 항만공사(Port Authority)로는 최초로 친환경 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적극적 대응 의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민·이해관계자와의 “성과창출형” 소통을 통한 지속가능한 인천항 구축



또한 ‘소통과 협력으로 인천항의 새로운 공유가치를 창출한다.’ 는 경영방침 아래, 항만의 이해관계자 및 대국민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내부·외부 이해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해양환경 보전, 국내 최초 항만분야 미세먼지 저감 성과 달성

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여 ‘친환경·고효율 항만 구축’을 기관의 주요 전략목표로 선정하고,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에코포트(Eco-Port)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전략수립으로 “지속가능도시 인천” “에코포트 인천항” 조성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지역 현안과 니즈를 고려하여 인천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지역발전 비전 등과 연계한 친환경 전략을 수립하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약자를 배려하고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통하여 “지속가능도시 인천” “에코포트 인천항” 조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IPA 연관 UN SDGs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4. 세계시민 의식강화 6. 건강하고 안전한 물 7. 친환경 에너지확대 8. 자원의 효율적 활용 9. 환경친화 기술혁신 12.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13. 기후변화 대응 14. 해양생태 보호 17. 글로벌 파트너십
정부 정책목표	미세먼지 저감 종합 대책 2022년까지 배출량 35.8% 저감 (2017 대비)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계획 2022년까지 폐기물 30% 저감(2018 대비)
항만공사 업무영역	선박(해양) 하역/야적(항만) 운송(도로) 배후단지 항만건설(현장)
배출오염	선박배기가스 해양 폐기물 하역장비 배기가스 적하역 비산먼지 화물차 배기가스 도로 비산 먼지 배후단지 폐기물 건설장비 배기가스 건설 폐기물
환경비전	맑은 하늘, 깨끗한 바다가 지속되는 인천항 조성 [미세먼지 저감] + [해양환경 보전] + UN SDGs 추가]
3대환경 MISSION	항만 미세먼지 저감 항만 대기오염 배출저감 활동 친해양·환경 항만조성 인천항 일화용품 저감활동 친환경 기술혁신 친환경 항만 R&D 활성화
세부실행 과제	가. 항만 미세먼지 저감 가-1. 미세먼지 저감 목표 관리체계 고도화 가-2. 선박 배출 미세먼지 저감 가-3. 항만출입 차량 미세먼지 저감 가-4. 항만 하역장비 친환경화 사업 가-5. 인천항 대기질 측정소 설치 및 운영 가-6.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강화 및 기타
	나. 친해양·환경 항만조성 나-1. 인천항 친환경 업사이클 브랜드 활용 나-2. 해양플라스틱 저감 환경보전 문화 확산 나-3. 인천해역 연안 환경정화 캠페인 나-4. 인천항 친해양·환경 공모전 운영 나-5. 인천항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환경정보 공개
	다. 친환경 기술혁신 다-1. 친환경 LNG 연료추진 예산 개발 다-2. 친환경 신소재 방출재 개발 다-3. 해양폐기물 스마트 전처리 인프라 도입 다-4. 통합 대기환경관리 플랫폼 고도화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청정한 인천지역 대기질 조성

인천지역 항만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인천소재 공공기관간 지역사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클린공사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자체, 정부, 항만전문연구기관과 인천항 대기질 개선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항만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 인천항 종사자 환경보전다짐선언, 해양환경 스타트업 발굴을 통한 항만해양분야 창업역량 강화사업을 통하여 인천지역 대기질과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청정한 인천지역 대기질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안·섬지역 해양 관광자원 보전을 위한 해양환경 정화 활동

인천항만공사는 바다를 기반으로 물류와 관광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관으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하고 자연친화적인 해양 관광자원 보전을 위해 인천항만공사 임직원뿐 아니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근 지역수협 및 어업인 단체에 이르기까지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을 ‘인천해역 환경정화의 날’을 지정·운영하여 인천 해역의 환경정화를 위해 땀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연안정화의 날, 바다의 날 등 해양환경 기념일마다 노사 공동 섬지역 환경정화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인천 연안의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추진하여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중입니다.

국제기구, 사회적협동조합, 입주업체와 함께 일회용 플라스틱 저감, 해양 환경자원 보전 문화 확산

국내외 환경 이슈인 해양 미세플라스틱 폐기물 오염문제 해결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No 플라스틱 인천항’을 위해서 국제기구 유엔환경계획(UNEP)과 함께 1회용품 사용 저감 캠페인 ‘아그리그(I green, We green)’ 챌린지를 추진하는 한편, 사내 일회용 플라스틱의 주된 사용처인 사내카페 사회적협동조합 카페오아시아(CAFEOASIA)와 협업하여 해양쓰레기의 주원인인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 퇴출을 위해 옥수수 전분 추출물로 제

작된 친환경 생분해소재 PLA플라스틱 컵·빨대로 대체하여 연간 3만개 이상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폐기물 발생을 저감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양플라스틱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와 참여 확산을 위해 인천항 친환경 업사이클 브랜드 ‘씨어클(SEARCLE, Sea(바다)+Recycle(재활용))’을 제작, 다양한 친환경 기관 홍보물품을 제작하고 인천항 입주업체들과 해양생태계 보호, 자원순환 협력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씨어클 타이업(SEARCLE Tie-Up)’ 파트너십을 추진하여 해양 환경자원 보전 문화확산을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그 외 4개 항만공사 공동주최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한 스타트업(영상처리 기반 해양방제로봇 개발)을 대상으로 테스트베드 제공, 항만전문가, 기술거래사, 변리사 등 다양한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하여 민간 스타트업 기업의 해양방제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래세대가 꿈꾸는 해양환경, 대국민 해양환경 보전 인식 개선 공모전 개최

인천항만공사는 또한, 미래세대의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자발적인 고민과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18년도부터 다양한 해양환경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년, 대학생 대상 『친환경 아이디어 공모전』 '19년, 『내가 Green(그린), 인천항 어린이 그림 공모전』을 연이어 개최하였고, 올해는 디자이너 이상봉과 협업하여 『2020 고교패션콘테스트 with 이상봉』에 해양환경, 리사이클 분야를 신설하여, 제품의 전과정(Life Cycle)에서 환경과 자원순환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유인하는 등 다양한 분야와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을 매년 추진하며,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과 해양환경보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가와 과제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성과, 친환경사업 대외 평가

인천항만공사는 정부의 국정과제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의 목표를 준용하여 국민(지역사회)이 체감할 수 있는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인천항의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2년 연속 목표

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2년	2025년	2030년
배출량 저감목표	2%	5%	10%	30%	40%	60%
배출량 저감실적	9%	14%	-	-	-	-

발생원	관리 활동	실행 내역	저감효과	추진성과
선박 (62.3%)	1 선박 전입공급장치 활성화	• 대형선박용 전원공급장치 시범사업 확대 • 의무사용 인센티브 제공(전기기본료 4억원)	SO _x 73% PM _{2.5} 66%	미세먼지 저감 - 목표 ■ 실적 ■ 계획 17년 273톤 18년 261톤 19년 247톤 20년 205톤 25년 40% 2025년 저감목표 9.5% 달성 운실가스 감축
	2 LNG연료추진 예산 개발	• 국내최초 LNG예산 개발로 노후디젤선 대체 • 엔진 동 핵심 선박기자재 국산화(78.5%)	SO _x 100% PM ₁₀ 100%	
	3 선박저속운항 해역 설정	• 팔미도 반경 20해리 감속 권고(20→12노트) • 자율참여 인센티브 제공(입출항료 5억원)	PM ₁₀ 49%	
수송차량 (34.1%)	4 저공해조치	• 기관합동 디젤 노후차량 DPF장치 지원사업	PM ₁₀ 80%	저감목표 9.5% 달성 운실가스 감축
	5 차량운행제한	• 항만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PM ₁₀ 66%	
하역장비 (2.4%)	6 친환경 하역장비 전환	• 저공해조치(경유 → LNG·전기/DPF)지원사업 • 이동식 LNG충전 안전기준 공동용역	SO _x 95% PM ₁₀ 100%	17년 144tCO ₂ 18년 196tCO ₂ 19년 205tCO ₂ 정부목표 초과달성
	하역 등 (1.2%)	7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PM ₁₀ 80% PM _{2.5} 80%	

또한, 지자체와의 환경정책 협업, 기업의 환경정보에 대한 대국민 공개 및 환경경영 문화 확산 등 항만에서의 다양하고 선도적인 친환경 활동이 대외로부터 우수 성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환경정보공개 대상 환경부장관상 (20.7) 국민 알권리 충족, 환경경영 확산 유도	'환경의날' 기념 인천광역시장상 (20.6) 환경행정 참여, 대기질 개선 노력	인천환경대상 환경우수기관 선정 (19.12) 항만 대기오염 저감 활동 추진	기상산업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18.11) 기상정보 활용 경영 효율화	공공부문 운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선정 (18.10) 에너지 목표관리 이행실적 평가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대통령표창 (18.7) 항만 대기오염 저감 활동 추진
					

친환경 항만 구축이 곧 인천항과 국가발전의 원동력

환경문제 해결은 지역과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인천항을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수 과제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배출 저감을 통해 친환경 항만을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친환경 신소재 연구 개발을 핵심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여 친환경이 곧 인천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과 소통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해양환경 보전, 국내 최초 항만분야 미세먼지 저감 성과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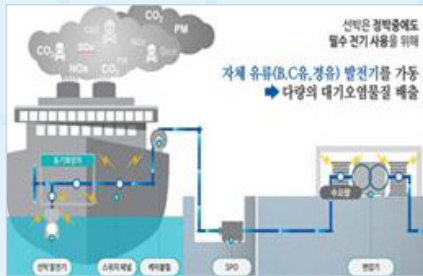
사진 등(핵심 사진 중심)



‘노후예선 LNG 추진연료 전환 사업 LNG 예선 건조 예상도



‘인천해역 환경정화의 날’ 환경정화 행사



선박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설명도



인천지역 환경 NGO 초청, 간담회 개최



사내카페 협업 'No Plastic' 캠페인



인천항 친환경 파트너십 'SEACLE Tie-up'



사업명 「우리가 Green(그린) 인천항」 어린이 그림공모전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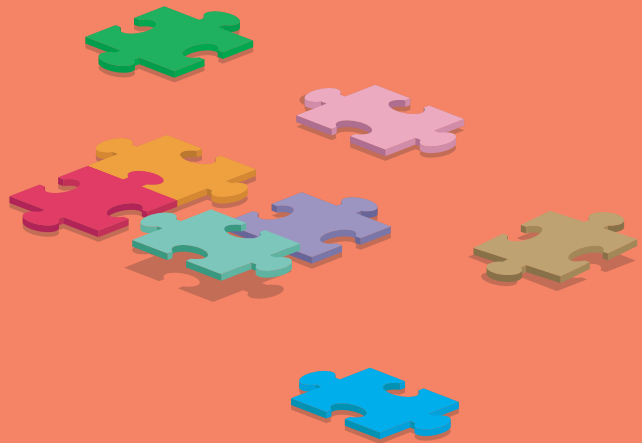


『2020 고교매선 콘테스트』 참여 해양환경, 리사이클 부문 신설

10.

한국세라믹기술원

국민의 'LOVE' 를 위해
지역사회 및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SDGs 이행



사업목적 및 배경 ●●●

세라믹 R&D 기관이 지역사회와 중소기업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015년 3월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분석·평가, 기술지원, 정책지원 등을 수행한다. 혁신도시 정착 4년차에 접어들면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주력산업 육성 등 새정부 정책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유역할인 R&D 이외에 다양한 지역발전 사업들을 기획하였으며 공감경영을 바탕으로 SDGs 이행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의 SDGs 이해관계자는 내부 구성원, 입주기업, 세라믹기업,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지역사회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일하기 좋은 업무환경, 세라믹분야 창업 및 성장지원, 공공기관의 역할제고 및 실질적 체감성과 기대 등 각기 다른 이슈와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기적으로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이슈와 의견을 반영한 지속가능경영 선도,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발전하는 세라믹 지속가능플랫폼 구축을 역할로 설정하였다.

지속가능한 'MOVE' 를 국민의 'LOVE' 로

한국세라믹기술원은 'MOVE' 를 'LOVE' 로 라는 슬로건 하에 SDGs 이행을 위한 4대 추진방향과 8대 실행과제를 선정하였다. 4대 추진방향인 LOVE는 ① Leading : 지속가능성 주도 ② Only : 세라믹 특화지원 ③ Valuable : 상생의 가치 제고 ④ Effective : 체감성과 창출 이며, 각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8개 과제가 모두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전략과제와 SDGs와 연계되어 있다.

8대 실행과제 중 특히, ① 지속가능형 지역상생 플랫폼 운영, ③ 세라믹 창업 성장지원 확대, ⑤ 사회적협동조합 파트너십 강화는 기존 한국세라믹기술원의 고유역할인 R&D를 벗어나 공공기관을 지역사회 참여의 장으로 개방하고, 세라믹을 활용한 창업 전단계 지원체계를 확립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립지원을 위한 지속가능형 Cafe를 모델로 제시하는 등 기존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대

폭 확장하고, 새로운 신규혁력 사업을 발굴하여 대내외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는 대표적인 우수사업들이다.



사업내용 ●●●

(과제 ①) 지속가능형 지역상생 플랫폼 운영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첫 번째로, 지역경제 활력제고 방안에 주목했다. 지역주민 대상 공모전과 시민단체, 중소기업, 창업기업대표, 대학생 총 9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혁신단을 운영하여 지역현안을 발굴하였다. 그 결과, 지역주민 대상 공공기관의 공간개방과 체험행사 운영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한정된 예산과 사업운영을 통한 효과성, 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선불리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고민에 봉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 진주의 기존에 운영 중이던 플리마켓에 주목하였다.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모여 진주 시내 공간을 대여하던 운영진에게는 낮은 인지도와 예산부족, 불편한 교통편, 판로개척 어려움 등 여러 애로사항을 가지

고 있었다. 이에 한국세라믹기술원은 플리마켓 운영진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KICET)을 지역소상공인의 판매장터와 지역주민 체험행사의 장으로 적극 개방하였다('19년 5월, 9월, 총 2회).

지역 소상공인 참여업체를 기존 57개에서 200개로 대폭 확대하였고, 콘텐츠 또한 먹거리, 생활용품 판매와 체험교실(유리, 도자, 과학실험), 캠페인 등을 결합하여 다양한 즐길거리를 지역사회에 제공했다. 또한 '19년 상반기 1회차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인근 공공기관과 협업을 통해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9월 2회차 행사 또한 성공적으로 마치며 확산에 기여했다.

그리고 지속성 확보를 위해 '20년에는 코로나 19사태를 반영하여 최소대면 행사방식으로 전환, 참여 공공기관 확대를 통한 프로그램 확대 등을 기획하여 '20년 7월 1회차 행사를 마쳤다.

운영성과로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18년 대비 460%가 향상된 2.8억 원을 기록하였고, 지역주민 참여인원이 '18년 대비 232%가 향상된 8,300명을 기록하였으며, 만족도 또한 90%를 달성하였다.

(과제 ②) 세라믹 창업성장 지원 확대

한국세라믹기술원은 경남 진주, 경기 이천, 경기 부천 총 3개의 거점별 창업보육센터를 구축하여, 세라믹 창업기업의 성공적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19년에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이라는 SDGs 목표에 부합하도록 창업단계를 세분화하고 보다 더 고객의 입장에 귀기울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창업단계를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창업성장 총 4단계로 나누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예비창업, 초기창업단계에는 사업화 자금, R&D연계 지원, 마케팅 및 투자지원 등의 인프라 제공에 주력하였고, 창업도, 창업성장 단계에는 창업실패, 시장사양 등 Dead-Zone 극복을 위한 시장진입, 판로개척 지원, 경영전략 수정, 규모 확장 등을 건인하였다.

그 결과,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S등급, 창업기업 총 46개 기업 매출액

100%, 신규고용 117% 향상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

(과제 ③) 사회적협동조합 파트너십 강화

한국세라믹기술원은 '19년 1월 사회적가치창출실을 신설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사업들을 전담하였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방안을 고심하던 중 진주 본원 내 1층 로비 자투리 공간 41㎡을 사회적협동조합이 Cafe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기관 내부적으로 본원 내 자투리 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지속 고민하였고, 특히 연구시설로 분류된 기관 부지의 용도변경은 큰 장애물이었다. 이에 진주시와 지속적인 업무협약과 사업운영의 효과성, 주변 상권 분석을 통한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완료할 수 있었다.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해 민간지원단체인 진주 지역자활센터와 민간기업 (주)웨이닝코리아와 MOU를 체결하여 인프라 제공, 인턴십 운영, 전문교육 및 기술컨설팅 제공 등 기관별 고유역할을 명확히 부여하였다.

그리고 운영시설과 각종 장비 등을 한국세라믹기술원이 모두 지원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수익을 모두 귀속하도록 하여 자립지원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주민대상 Cafe 명칭공모를 통해 인지도를 확보하였고, 오픈마켓과 연계한 판로지원을 통해 지속성을 확보하였다.

그 결과, 지역 경력단절여성 채용과 인턴십을 통한 지역 일자리 7명을 창출하였고, 월매출 1천만원, 방문객 1천 7백명 등을 7개월여 만에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대외에서도 단순 지원을 넘어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노력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시즌2 생생발전 분야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평가와 과제 ●●●

‘지속가능발전’ 이 곧 ‘혁신’ 이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UN SDGs와 관련해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불평등 감소’ 등에 주력하였다. 이외 실행과제를 통해서 ‘육상 생태계보호’, ‘산업, 혁신, 사회기반 시설’,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양질의 교육’, ‘성평등’ 에도 기여한 바 있다.

실적과 성과를 위한 사업추진보다 사업의 효율성과 고객 중심의 서비스 마인드를 기반으로 보다 더 지속할 수 있고, 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운영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노력은 3가지 대표 우수사업 외에 세라믹분야 청년취업 활성화, 세라믹 오픈캠퍼스 운영, 안전한 세라믹 연구기관 조성, 코로나19 대응역량 제고, 환경친화·자원재활용 R&D 확산, 세라믹 기술 활용 ODA 실천 등 다양한 사업으로 표출되었다.

다만 그동안 추진한 지속가능발전 실행과제들 중 R&D, 기업지원 부문 등은 기존의 과제의 틀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또한, 신규과제들은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성과확대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보다 경영혁신의 관점에서 일하는 방식 개선, 서비스 범위와 내용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이해관계자의 참여기반 과제 추진, 민-관-공 협업 확대 등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 도래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할 문제이다.

이에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지원,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성과공유를 위한 지속성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더욱 기관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형 지역상생 플랫폼의 경우 기존의 목적을 유지하되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한 구매방식 변화(온라인, 드라이브 스루 등), 거리두기 유지 위한 공공기관별 공간 확대제공 등이 그 예이다.

사진 등(핵심 사진 중심)



지속가능한 지역상생 플랫폼 운영



세라믹 창업성장 지원 확대



사회적협동조합 파트너십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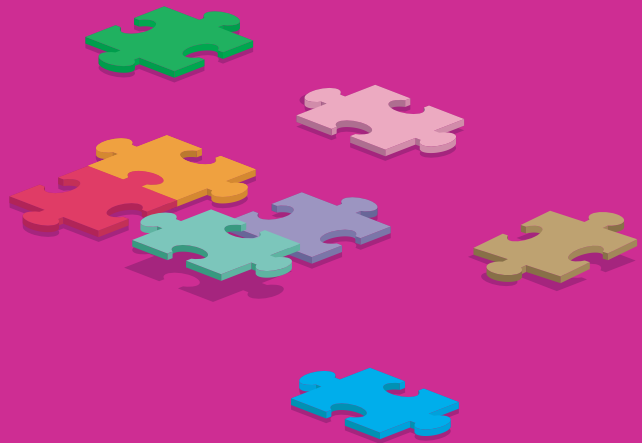
개인



11.

유인근, 옥진우

SD GAME 시뮬레이팅으로 지속가능발전의식 키우기



사업목적 및 배경 ●●●

어떤 책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여러 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이 없어 맨홀 속에서 사는 아이, 탄광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아이, 전쟁으로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 등등.. 근데 이야기를 다 들은 한국 학생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이거 다 거짓말이지? (거짓말 같은 이야기, 강경수)

인천의 어느 초등학교 5학년 학급의 실제 사례입니다. 굿네이버스에서 매년 진행하는 희망편지쓰기 활동이 있습니다. 올해는 말라위의 12살 소년 핫산의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부모 없이 두 동생을 책임지는 핫산의 영상을 보았고 모두들 핫산이 불쌍하다고 얘기하였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핫산의 처지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눈 뒤, 선생님은 희망편지를 나눠주고 핫산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편지를 써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8명 중에 4명만이 편지를 써왔다고 합니다.

만약 수행평가에 반영되는 과제였거나 과제를 해온 학생에게 무언가 보상이 있었다면 편지를 써온 학생이 4명에서 그쳤을까요? 동영상을 볼 때에는 핫산이 너무 불쌍하고 핫산을 돕고 싶었던 학생들이었지만 그 마음이 실천으로 연결되는 것은 이렇게 힘이 듭니다. 내 일이 아니고 남이니까, 나랑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것은 학생들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현대인들은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에서 어린 아이들이 고생해서 채취하는 광물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필수재료이고 외국의 대통령 선거결과에 따라 우리의 외교와 경제의 노선이 달라집니다. 브라질의 아마존 개발은 세계 환경을 위협하고 있고 중국의 산업화, 일본의 방사능 유출은 우리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지금은 전 세계에 퍼져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세계화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많은 핫산을 외면하고 있는 태도로 인

해 분명히 세계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문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예전부터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학습 방법, 이를테면 동영상을 보거나 책을 읽고, 학습지에 써보는 그런 수동적인 학습방법으로는 공감을 이끌어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학습지와 동영상에서는 지구가 위기이고 세상에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정말 많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풍족하게 소비하고 위기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감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전쟁, 난민, 기아 및 생태계의 파괴 등을 직접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실에서 그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사업내용 ●●●

저희가 찾은 방법은 바로 선택입니다. 수동적으로 보고 듣는 교육이 아니라 비록 가상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협력하여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갖고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여 만들어나가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구현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지구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마침내 SD GAME 시뮬레이션 자료를 완성하였습니다.



SD게임



SD게임을 활용한 수업 장면

이 자료의 목적은 가상국가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식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게임형식을 적용하였고 이 게임의 최종 승리 조건은 지속가능발전이 가능한 국가를 운영하면서 주변국과 협력을 통하여 세계 전체의 환경도와 평화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모든 국가가 지속가능발전 조건을 만족하여 지속가능발전 세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전쟁, 무역, 협상, 생산, 복지 등 다양한 국가 운영을 통하여 최대한 많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지식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국가를 경영하고 구성원과 토의, 정책 계획 및 실행을 통해 자발적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와 세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를 통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고 주변 국가들과 어떻게 협력해야 지속가능발전이 가능한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안내자의 역할만 할 뿐 수업의 전체적인 운영은 학생이 주도하게 됩니다.

게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환경오염을 감수하고 경제 개발을 할 것인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태양광 발전소를 많이 건설할 것인지, 군대를 양성하여 다른 국가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할 것인지 등 국가 구성원간의 토의, 토론 등을 통해 국가를 운영합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수업 중에 인상깊었던 것은 아마존 개발과 관련된 수업이었습니다. 작년에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 열대우림을 개발을 허용하면서 열대우림이 파괴되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비난여론이 드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리고 당사국인 브라질과 그 주변국들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면 좋을지 시뮬레이션 해보는 수업을 하였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 탐색 단계에서 학생들은 브라질과 주변국으로 나뉘었고 브라질은 아마존을 개발해야만 하는 이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주변국들은 환경도 하락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브라질의 입장에서 환경도와 평화도 점수를 유지해야 하기에 전쟁이나 무작정 개발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브라질과 주변국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UN과 세계은행도 브라질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브라질의 경제 지원 협상이 체결되었고, 주변국이 브라질에게

자원을 원조해주고 세계은행이 브라질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브라질은 아마존 개발을 하지 않고 국가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프로젝트학습 : 지구의 허파, 아마존의 위기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매우 진지하였고 실제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의 환경을 생각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수업 전과 후의 학생들의 의식 변화를 보면 이 게임의 효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업 전에는 브라질의 태도를 비난하는 것이 대다수였는데 수업 후에는 브라질의 상황을 이해하고 브라질과 세계가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형태로 변화되었습니다.

SD게임은 작년과 올해 여러 연수를 통해 많은 교사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예비교사인 교육실습생들을 상대로 연수를 실시하였고, 본교의 교사들과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이루어 활동하였으며, 또한 인천의 여러 교사들을 대상으로 공개수업과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실습생 대상 연수



교내 교사 대상 연수



인천시 교사 대상 워크숍

SD게임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해 제50회 전국교육자료전에 출품하여, 전국의 교육관계자들 앞에서 저희의 교육자료와 수업을 발표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전국대회 1등급이라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현장에서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중요성이 해마다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의 영향을 받아 올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수업 활동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학년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게임을 만들어 활용하는 선생님도 생겼습니다. 저희의 작은 노력이 선생님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과가 보이는 것 같아 깊은 감사와 보람이 느껴집니다.



전국교육자료전 1등급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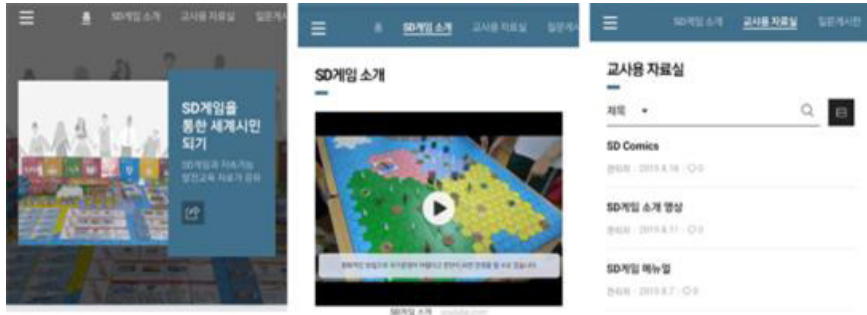
에너지절약 보드게임 개발

평가와 과제 ●●●

향후 저희는 세계 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SD게임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할 것입니다. 또한 교사 대상 연수를 확대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완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용화에도 도전해볼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전에도 경기도환경교육센터와 함께 보드게임을 개발해 본 경험이 있어서, 교육청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상용화하여 각 학교에 널리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무상으로 모든 자료와 소스를 공개하고 있지만 앞

으로도 선생님들이 저작권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교육적 목적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SD게임 개발 자료 공개 홈페이지 <https://sdgame.modoo.at>

브라질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한국에 사는 5학년 김○○라고 합니다. 요즘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 숲을 불태워 개발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숲을 개발하면 지금은 이득이 될지 몰라도 미래에는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설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눈앞의 이득만을 바라보시는 건 아니겠죠? ... (중략)...

만약 UN과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존심만 내세우는 것은 나라에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외교, 무역 협정을 맺으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김○○올림

수업을 마치고 한 학생이 브라질 대통령에게 쓴 편지입니다. 시뮬레이션 활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주제별로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선택을 내면화하고 다른 학생들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보조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향후에 이러한 부분을 더 보완하여 더욱 체계적인 매뉴얼과 워크북을 만들고자 합니다. 조금 욕심을 내자면 단순한 게임베이스 드러닝(GBL)을 넘어서 SD게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종합교육자료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난민을 위한 간척사업을 하면 어떨까요?” 난민 문제를 주제로 SD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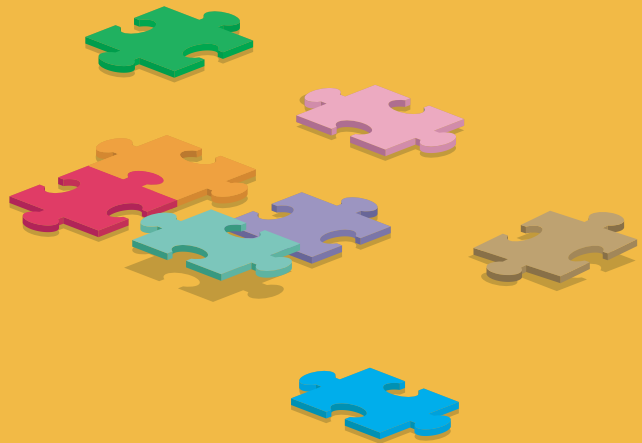
수업을 하던 중 한 국가에서 제안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당 수업에서는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간척사업을 통해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여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직접 해결해보는 활동을 통해 우리 학생들은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리더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학생들의 지속가능발전의식을 함양하는 창의적인 교육자료들이 개발되길 기대합니다.

12.

백 명 순

슬기로운 주부생활,

「아이스팩 재활용」 전국 열풍의 주역



사업목적 및 배경 ●●●

문득 깨닫게 된 환경문제

나는 강동구에 살고 있다. 강동구는 서울의 가장 동쪽에 위치해 있다. 얼마 전까지 녹지율이 50%가 넘을 만큼 녹음이 짙은 곳이었다. 번두리에 있어서 조금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인정이 많아 이웃 간에 정을 나누며 살기에는 좋은 곳이었다.

하지만, 2011년 고덕강일지구 개발이 시작되면서 강동구는 점점 녹지가 줄어 들고 자족시설과 고층 아파트로 뻗뻗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개발에 속도가 붙으면서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이 느껴졌고, 그 만큼 마음 한구석에서는 답답함이 커져갔다. 그리고 그 답답함은 ‘나부터 무언가가 실천해야 한다.’는 소명감으로 발전했다. 특히 평소 생활 속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보며, 마땅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아 복잡했던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졌던 그 즈음, 그러니까 2018년.

「플라스틱 없는 서울 만들기」 토론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토론회를 통해 플라스틱이 환경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편리하고 쉽고 간단한 공정을 통해 만들어지지만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분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게 조각 조각나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그것이 전부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불현듯 집안 냉장고에 모아 두었던 「아이스팩」이 생각났다. 아이스팩은 오랫동안 찬 기운을 품으면서도 젤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폴리머’라는 미세 플라스틱을 함유하고 있는데, 분해에 500년이 걸리는 미세플라스틱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고민이 시작되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이스팩의 문제는 생활패턴의 변화와 함께 찾아왔다. 1인 가구 및 맞벌이 증가로 인해 택배산업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이에 따라 수산물이나 냉동식품을 장거리 배송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냉매로서 유효한 아이스팩의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아이스팩은 99%가 수분이고, 1%가 미세플라스틱(폴리머)이다. 하지만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무게나 부피가 상대적으로 커서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아이스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활용 관리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두 가지 방법이 떠올랐다.

첫 번째는 기능 그대로 재사용하는 방법, 즉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재사용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한 다음 필요한 곳에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아이스팩의 특성을 이용한 방법으로, 재활용 유리병 등을 이용해 방향제로 재탄생시켜 필요한 곳에 기부하는 것이다.

사업내용 ●●●

첫 번째 : 아이스팩 재사용캠페인

맨 처음 아이스팩을 재사용하면 어떨지 생각했을 때, 일단 강동구청 청소행정과에 찾아가 보았다. 청소행정과 재활용팀장님과 담당 주무관님께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린 후, 함께 추진해보면 어떨지 의사를 물어보았다. 강동구청에서 흔쾌히 동의해주었고, 2019년 1월에는 강동구 관내 기업인 「현대홈쇼핑」에 방문하여 현대홈쇼핑의 온라인 수거방식과 강동구 관내 거점 수거방식을 함께 활용할 것을 건의·합의함으로써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러고 나서 2019년 3월에 아이스팩 재사용 민·관·기업 업무 협약을 맺게 되었다.

환경오너시민모임은 수거함을 관리하면서 아이스팩 수거를 주로 하였고, 아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홍보 및 교육도 진행하였다. 그리고 현대홈쇼핑은 재사용에 꼭 필요한 세척 및 포장을 하였고, 강동구청은 수거 전용함을 설치하고 캠페인 진행 및 활동단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3개의 기관이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각자의 역할을 하며 시너지 효과를 냈다. 수거·세척하여 포장한 아이스팩은 전통시장에 무상 공급되었다.



아이스팩 재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아이스팩 전통시장 무상공급

두 번째 : 방향제 만들기

아이스팩 재사용 캠페인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단체와 기관이 벤치마킹을 하러 왔고, 사업이 확대되었다. 그렇지만 아이스팩 수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수거를 먼저 한 후에 소독·재포장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 비용이 신제품 생산 비용에 못지않게 소요된다는 점과 오염된 제품은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이였다. 또한 재사용 아이스팩에 대한 유통이 번거로워서, 수거량에 비해 수요처 확보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스팩을 재활용할 다른 방법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폐 음료수병에 젤 형태 아이스팩 등을 결합해 「방향제」를 만드는 것이었다. 방향제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폐 음료수병에 아이스팩 젤을

넣고 물감과 향료를 조금씩 넣어 섞으면 된다. 아이스팩 방향제가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제격이지만, 방향제를 만들어 둔 후 몇 개월이 지나면 부피가 1/20정도로 줄어들어서 쓰레기 배출량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도움이 된다.



방향제 만든 직후



5개월 경과된 후

아이스팩 방향제 만들기가 큰 호응을 얻어서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과 병행 운영하게 되었다. 방향제를 만들며 환경문제를 환기하게 되는 교육이기에 더 의미가 있었다. 또한 방향제에 모기퇴치 성분을 넣어서, 복지 대상자에게 나눠주는 활동도 하였다.

평가와 과제 ●●●

첫 번째 : 아이스팩 재사용캠페인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은 강동구 18개소(구청 및 주민센터)에 설치되었다. 2019년도에는 62,705개의 아이스팩이 수거되어 31.4톤의 쓰레기가 줄었고, 2020년에는 7월까지 45,420개 정도가 수거되어 22.7톤의 쓰레기가 줄었다. 이렇게 총 54.1톤의 쓰레기가 줄어들게 되었다. 그리고 아이스팩을 수거함으로써 온실가스도 감축되었는데, 같은 기간 온실가스 총 감축량은 30.02톤이나 되었다. 환경을 위한 작은 행동과 아이디어가 이렇게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러한 노력으로 아이스팩 재사용 캠페인은 2019년에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등재되었고, 올해의 정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이 캠페인을 카드 뉴스로 제작하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송파구·성동구·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연락을 해오기도 했고, 심지어 타 지역 시민이 아이스팩을 강동구로 보내는 일도 있었다.

이 캠페인을 하면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 일도 생겼다. 서울여대에서 수업 주제로 아이스팩 재사용 캠페인을 활용하여서 민·관·기업 3자 협력의 모범사례로 소개를 하였고, 국민 청원을 통해 친환경 아이스팩 제조를 촉구하기도 한 일이다. 그리고 서울신문, 아시아경제, 동아일보, KBS 등 주요 언론에도 소개가 되기도 했다.



2020. 혁신 챔피언 인증패 수상



2019.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수상

두 번째: 방향제 만들기

아이스팩 방향제 만들기 교육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과 병행하여 방향제 만들기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단체 및 주민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활동으로 자원순환 학교를 운영하여 1,6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8월부터 다시 진행되기도 하였다. 또한 강동구청 열린뜰에서 열린 프리마켓에서 어린이 및 학부모 150여명이 참여하여 방향제를 만들기도 하였다.

저소득 가정에 모기퇴치 방향제를 기부하는 활동도 하였다. 환경오너 시민모임 회원이 강사가 되어 강동구 17개 동에서 각 100개씩 제작하였고 이를 저소득 어르신가정에 기부한 것이다. 특히 각 동에서 주민이 함께 방향제를 만들어 기부했다는 점이 뜻깊었다.

앞으로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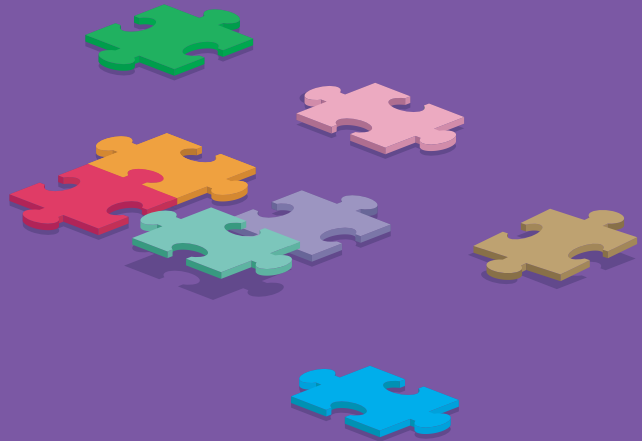
이제 또 다른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 이때까지는 아이스팩을 수거할 때 동별 발생량, 수거량, 시장별 수요량을 사람이 직접 가서 확인하여 카카오톡 등으로 공유를 했기 때문에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았고 인력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ICT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서 아이스팩의 생산·발생·수거·수요처를 전산화하려고 한다. 올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스마트 시민랩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고, 곧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13.

윤 여 태 (해피나비프렌즈)

해피나비 해피피플



사업목적 및 배경 ●●●

1. 어느 어린 길고양이의 죽음

우리나라에 길고양이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 숫자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 약 100만 마리가 길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고양이들은 왜 차가운 도시 위에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버렸기 때문입니다. 250만 마리가 반려묘로 살아가고 있으나 매년 3만 마리의 고양이들이 길 위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엄연히 생명임에도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그저 물건에 불과하고 그래서 사고팔기도 하고 그래서 더 쉽게 버려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책임으로 버리진 길고양이들은 그들에겐 너무도 가혹한, 도시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길고양이의 문제가 사회문제를 자각하게 된 계기는 어느 어린 길고양이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길고양이 구조요청을 받고 달려간 그곳에선 한 어린 길고양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긴급하게 동물병원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수의사님께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적어도 사흘 동안 물을 포함해 아무 것도 못 먹은 것 같고 그래서 피가 말라 수액도 놓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어린 길고양이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팠던 사실은 그 아이가 쓰러진 그 근처가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식당가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굶주린 길고양이들은 쓰레기 더미를 뒤져 먹을 것을 찾고, 영역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도 하며, 흙을 찾아 분변을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고, 심지어 그런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동물을 향하던 그런 학대와 폭행이 사람에게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통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러한 길고양이 문제에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과 조례 등의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곧 길고양이 문제가 비단 동물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사람과 우리 사회의 주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같이하는 동료들은 ‘동네 주민과 동네 고양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을까’ 라는 대담론을 정하고 그 답을 찾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길고양이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고양이의 유기방지와 공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함께 공감하고 행동해 줄 ‘해피나비프렌즈’ 라는 커뮤니티를 결성하면서 동시에 길고양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임에도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컨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길고양이를 향한 학대는 곧 어린이, 노인, 여자와 같은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미루어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로드킬의 경우 약 75%가 길고양이인데, 그 대부분이 골목길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길고양이 로드킬 사고가 빈번한 골목길은 상대적으로 반응이 느린 어린이와 노인, 나아가 우리에게도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당장 나의 부모님, 나의 아이 또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길고양이를 둘러싼 문제들은 곧 우리의 문제임에도 이를 단지 동물의 문제로만 한정하여 바라봄에 따라 우리 관심 밖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길고양이 문제를 우리 자신의 문제로 바라볼까?” -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일상적인 캠페인을 통해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인식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길고양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길고양이 문제에는 복잡한 원인이 얽혀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길고양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입니다.


따라서 길고양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고양이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행동과 태도 변화로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을 단기간 해결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선 길고양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

러일으킬 수 있는 차원의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내용 ●●●

1. 해피나비 해피피플

길고양이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임을 인지한 우리는 반려 고양이 유기문제와 길고양이 학대문제에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전주 시 사회혁신 리빙랩프로젝트를 통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반려하던 고양이를 버리지 않을까?’ 또 ‘어떻게 하면 주민과 동네고양이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설정하고 ‘배우고, 알리고, 잇고, 나누고’ 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고양이 사진작가이자 '운 좋게 살아남았다.' 등의 저자 김하연 작가 강연(찰카기의 썰) - 길고양이 관련 민관협력의 선진사례로서 관악구 길고양이보호협회 방문 - 동물보호법 교육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 고양이 이해하기 야옹! 안녕, (유기방지를 위한 고양이 상식) - 길고양이가 왜 우리의 이웃인가? - 동네 고양이의 겨울나기를 도와주세요 (고양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겨울을 맞아 '한끼사료나눔', 겨울집 나눔' 라이프노킹' 캠페인 진행) - 지역 청년 예술가들과 길고양이를 알리는 캘리그래피, 일러스트 업서, - 동물병원 원장, 길고양이 전문가, 청사포 고양이마을 기획자와 함께 다양한 토론회를 바탕으로 '고양이 Q&A' 북 제작 배포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피나비프렌즈결성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style="text-align: center;">💧💧</p>
---	---	--

2. 무릎 아래 작은 이웃 길고양이-함께 살아요. 살고 있어요.

1차 활동을 진행하며 우리는 인식개선 이전에 길고양이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자, 길고양이 사회문제가 곧 사람의 문제임을 ‘인지’ 할 수 있는 활동이 선행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쉽게 참여하고 알릴 수 있는 캠페인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메시지가 새겨진 테이프를 만들어 재미있는 스토리를 입히고 뜯어진 쓰레기봉투나 택배상자, 길고양이 급식소 등 다양한 일상생활 공간에서 길고양이 문제를 알릴 수 있도록 나누었습니다. 또한, 고양이는 사고파는 물건이 아니라 엄연한 생명임을 알리는 ‘사지마세요, 입양하세요.’ 캠페인을 진행하였는데 특히, 구매가 이루어지는 계산대에서 이를 알림으로써 더 깊게 의미가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을 미디어로 활용하여 길고양이 문제를 알리는 ‘워킹 포스터’ 캠페인, 로드킬 문제를 상기시키는 ‘해피로드’ 캠페인, 길고양이도 소중한 생명임을 알리는 ‘이름을 불러주세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아이와 어른들에게 보다 쉽게 문제를 알리기 위해 인형극을 제작하였고, 우리나라 역사 속 최초의 캣맘 ‘묘마마’ 이야기를 발굴한 창작동화와 ‘세상의 모든 고양이’ 라는 팟캐스트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길고양이에 대한 문제를 알리고 인식개선으로 나아가는 활동을 펼쳤으며, ‘전주 청소년문화의집’ 과의 연대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3. ‘동물친화도시’ 전주시를 위해

전주시는 동물과 사람이 상생하는 동물친화도시를 표방하며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유기동물재활센터 운영,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피나비프렌즈가 결성된 후 얼마지 않아 마침 전주시에서도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를 신설한 시점이어서 길고양이 관련 정책에 대한 다양한 협력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전주시장님과의 간담회, 동물복지 우수정책토론, 동물복지 다울마당 위원활동 등을 통해 개정된 전주시 동물보호조례에 길고양이와 동물보호교육 조항이 들어가도록 도왔고, 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

을 제안하였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주시의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계획에 참여한 것입니다. 공식 길고양이 급식소는 단순히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중요한 정책이자 길고양이가 국가에서 보호, 관리하는 동물임을 알리는 중요한 알림판 기능을 합니다. 당시, 전주시에서는 전주의 상징인 풍남문과 한옥모양의 급식소 시범설치를 생각하고 있었으나 제작, 설치 장소, 운영 방법 등에 대해 고민 중이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협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풍남문 급식소와 한옥 급식소를 5곳에 설치하였고, 현재 해피나비프렌즈 캣맘, 그리고 시민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전주시는 올해 중 5개소에서 20개로 급식소를 늘릴 예정입니다.

평가와 과제 ●●●

1. 사람과 고양이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전주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제2조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최근 개정된 전주시의 동물복지 조례에서는 위처럼 처음으로 길고양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부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해 위임되어 실시되고 있는 ‘고양이 중성화사업실시요령’에서 규정된 이래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그 규정을 시작했고, 전주시에서도 작년 조례 개정을 진행해 길고양이 관련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길고양이 문제에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은 길고양이 문제가 비단 동물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사람과 우리 사회의 주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 중 16번은 인권, 정의, 평화의 항목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폭력 활동을 지양하고,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는 정부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길고양이를 둘러싼 문제는 엄연히 우리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영역임에도 동물의 문제로만 여겨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캠페인, 전시, 강연, 토론 활동 등을 통해 길고양이들의 존재를 알리고 인식개선, 편견 해소, 공존 방안 등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적잖은 시민들이 길고양이 존재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많은 분들이 함께 캠페인 활동에 참여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활동을 계기로 다른 도시에서도 모임을 결성하여 그곳의 길고양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동물친화도시를 표방한 전주시와 협력하며 조례 개정 제안,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운영 협력, 길고양이 돌봄교실 협력 등을 통해 나름의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무릎 아래 작은 이웃, 함께 살기를 소망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죽는 고양이들. 그들의 평균 수명은 고작 2~3년이라고 합니다. 보살핌을 받는 반려 고양이들의 평균 수명이 15년임을 감안한다면, 길거리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냉정하게 보자면 우리의 활동은 그 첫발을 떴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도시 생태계의 일원인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나아가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통해 생명존중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해 온 해피나비프렌즈는 앞으로도 사람과 고양이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세상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 한 사람의 열 걸음 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캠페인은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확장성이라는 과제가 항상 놓여 있습니다. 길고양이의 사회문제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숙제를 풀고자 테이프나 티셔츠, 동화, 라디오, 팟캐스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누구나 참여하고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더 나은 방법과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진행해 온 프로젝트를 통해 받았던 피드백을 반영하여 캠페인과 캠페인 도구들을 보완, 확장하는 한편 길고양이를 소재로 한 이모티콘과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을 더욱 확장

하여 청소년 교육 및 봉사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연 등을 통해 이를 알릴 예정입니다.

나아가 미비한 조례 개정 제안,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 운영, 다른 도시 길고양이 관련 단체와의 연대 등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 걸음은 작지만 연대의 힘을 통해 무릎 아래 작은 생명을 존중하고 그들과의 공존공생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길임을 믿으며 이 사례 발표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길고양이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여 주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진 등(핵심 사진 중심)



2018 해피나비프로젝트 - 포스터



길고양이 겨울나기 한기사료 / 라이프 노킹 캠페인



길고양이 겨울집 나눔 캠페인



고양이 상식 및 길고양이 관련 기획 전시



고양이 일러스트 업서 제작 '우리 함께 살아요' - 청년 지역 작가들과의 협업



겨울집 / 급식소 캘리간판 만들기



참여보드- 사람과 고양이의 따뜻한 공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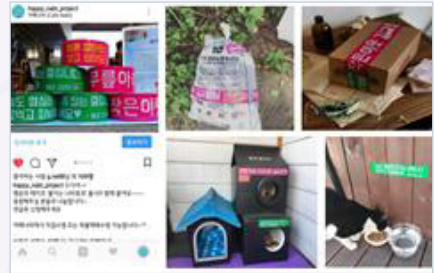


전문가패널과 함께 한 해피나비특우유

사진 등(핵심 사진 중심)



2019 해피나비프로젝트 - 포스터



행운의 테이프 '붙이는 나비효과'



길고양이도 사람도 안전한 길 '해피로드'



계산대 미니 게시판 '사치마세요. 입양하세요.'



사람을 미디어로 '워킹 포스터'



어린이와 어른신의 인식개선을 위한 인형극



김하연 작가의 길고양이 돌봄교육 협력



우리동네고양이 '이름을 불러주세요.'

사진 등(핵심 사진 중심)



함께 살아요. 살고 있어요. -영상, 전시, 캠페인 체험 등



동물복지 전국 '길고양이' 급식소 문 활짝... 전주시 길고양이 공식급식소 운영계획참여 및 자원봉사활동



동물권 행동 카라 내방교육



동물을 위한 행동 박정희 공동대표 초청강연



선진사례 - 관악길고양이보호협회탐방

동물권 단체 교육 주최 및 선진사례 탐방



세상의 모든 고양이 - 팟캐스트 방송



동화 '묘마마' 제작과 북토크





사진 등(핵심 사진 중심)



청소년 교육 및 봉사활동 -with 전주 청소년 문화의 집



초청 강연 활동 - 고양이 특유의(순천), 동물해방을 위하여



확장활동 - 환경과 동물을 위한 한걸음

